

원고모집

『민중문화』는 문화운동의 이론과 성과와 자료들을 서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중문화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생활현장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토론되는 마당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민중문화

1984. 9. 25. 제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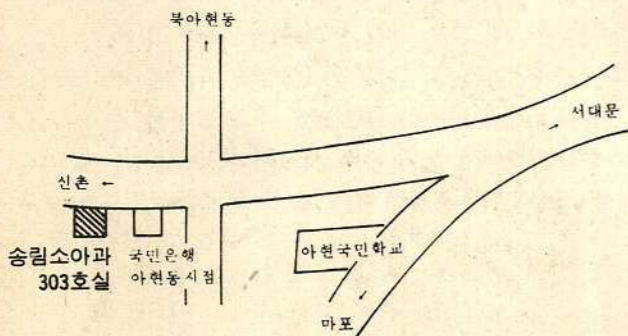
회원가입안내

본 협의회는 “이 땅에 문화의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참다운 민중문화의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은 문화운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 협의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신청서에 주소·생년월일 등의 기록사항을 적어 넣으시고 회비 1만원(입회비 5천원, 년회비 5천원)을 실행위원 또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납부하시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됩니다.

임원진

실행위원 : 송기숙 · 원동석 · 허병섭 · 황석영 · 김종철 · 여익구 · 호인수  
 김학민 · 채희완 · 최민화 · 채광석  
 사무국장 : 박인배



121

마포구 아현동 330-3  
 송림소아과건물303호실  
 전화 : 312-5393

민중문화운동협의회

# 민중문화

1984. 9. 25. 제 3호



- 세기의 정치쇼와 '한일 새시대' 2
- 언론·예술에 대한 검열제도를 폐지하라 16
- 생활속의 일본문화 6
- 현단계 문화운동의 과제 18
- 올림픽과 국력과 노동 10
- 부록 : 일본관계 대본자료
- 대중조작으로서의 올림픽문화 13
- 참 민족해방을 위한 거리굿 28

민중문화운동협의회

# 세기의 정치 쇼와 '한일 새시대'

1984년 9월 6일 아침 9시 30분, 서울태평로의 성공회성당 뜰에는 '매국방일 반대' '굴욕외교 철폐하라' 등의 내용을 적은 띠를 머리와 몸에 두른 성직자, 재야인사, 해직언론인, 농민·노동운동가, 청년운동가 30여명이 궤기대회를 열고 있었다. 일본재침략저지 민족운동대회가 주관한 이 모임에서 대회장 문익환목사가 "현대에 경술국치가 재현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논지의 「구국투쟁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일장기가 화형에 처해지고 '대한민국 만세!' '민주화운동 승리 만세!' '민족통일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70세에 가까운 목사를 포함한 이들은 회를 마친 뒤 차량이 질주하는 태평로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방일 반대'를 외쳤다. 1분쯤 교통이 차단된 끝에, 곤봉을 치켜든 기동경찰대가 달려들어 이들 가운데 22명을 철창차로 무자비하게 이끌고 갔다. 10시경에는 옛 대한일보 사옥 앞에서 목사와 청년운동가 등 4명이 「구국투쟁선언문」을 낭독하다가 역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로부터 얼마 뒤 국가수반과 수행원들의 차량행렬은 김포공항을 향해 떠났다.

같은 날 오후 3시 도쿄의 영빈관을 찾아가던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양국 교류사상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 이웃나라의 원수를 향해 인사말을 던졌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각하께서 무사히 도착하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926년부터 45년까지 19년간 식민지인 조선을 지배한 천황, 현인신(現人神)으로서 일본의 신민들과 동남아시아 식민지 백성 위에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히로히토, 패전 후 점령군인 미국의 정책에 의해 전범으로 처형되지 않고 신의 지위로부터 인간으로 강등되었으나 여전히 국가원수로서 일본의 보수세력과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는 83세의 '덴노헤이카'(천황폐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의 원수와 그의 대면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한 공작과 사전준비가 있었는가는 이날 밤에 열린 궁성의 만찬

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 어떤 국민에 대해서보다도 극진한 대접이 베풀어지는 가운데 두 나라 고관들과 각국 외교관들은 화기에애한 속에서 축배를 들었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이었던 히로히토의 식민통치에 대한 언급은 이 '세기적인 정치 쇼'를 연출한 일본측 위정자들의 빈틈없고 노획한 숨씨를 여실히 반영했다.

..... 긴 역사에 걸쳐 양국은 깊은 이웃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이에도 불구하고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서 양국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과 매스컴은 '유감'이라는 용어는 외교적 관행으로 보면 '사과'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해설하면서 이것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일컬었다.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불행했던 것은 식민지 조선의 민중이었지 일본의 제국주의자·식민주의자·군국주의자, 그리고 히로히토 자신은 아니었다. 우리의 젊은 남녀 수십만명을 학병·징용·정신대로 끌어가서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이 국토의 자원을 남김없이 수탈해 간 식민통치시대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히로히토는 적어도 패전 직후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65년의 '국교 재개' 직후에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한국민에게 전해야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삼도록 강제한 히로히토. 그는 37년 10월 2일 조선총독 미나미(南次郎)로 하여금 조선인이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도록 한 장본인이었다.

1.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씩씩한 국민이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용 황국신민서사」였다. 당시 보통학교의 1학년용 수신교과서에는 "천황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룩한 분입니다. 천황폐하는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십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거룩한 분'이 패전 이후 '유감'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린 것이다.

히로히토의 '유감' 표명에 비하면 나가소네의 '반성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일한 두 민족의 교류의 역사는 아마도 수천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기간을 통하여 한국은 스승이었고 우리는 그 제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도래한 선인들이 전해온 문화와 기술이 기여한 역할이 그 얼마나 컸던가에 대하여는 새삼 말씀드릴 나위도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일본이 한국에서 많은 것을 얻었던 이와같은 일한 교류사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금세기의 한 시기에 일본이 한국과 한국 국민으로 하여금 숭한 고난을 겪게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일본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과오에 대하여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장래를 엄숙히 계심(戒必)하려고 결의하고 있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인의 한국방문도 이러한 반성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일한 양국 간에 새시대의 장을 열고자 하는 국민소망의 발로로서 실천에 옮겨진 것입니다.

나가소네는 「오찬사」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이 방문은 '장거'이며 '영단과 결의'의 소산이라고 찬양했다.

우리는 히로히토의 '유감'과 나가소네의 '반성과 계심'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거룩한 분'으로서 식민지 통치의 최고책임자였던 히로히토는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극히 모호하고 오만한 표현을 한 데 비해 현역정치인이며 패전 당시 일본제국 해군중령이었던 나가소네는 대단히 '겸허한 자세'로 과거를 반

성하면서, 국내의 거센 반대에 아랑곳없이 찾아온 국민을 극구 찬양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가소네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전후 요시다, 기시, 이케다, 다나카 등으로 이어지는 자민당 극우파의 적자(嫡子)이며 70년에 방위청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발표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암암리에 제창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의 통상상 시절에 일본방위대의 행동범위는 일본영해로부터 1천마일 밖까지 미친다고 말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장본인이다. 나가소네가 집권한 이래 일본정계에서는 그 이전에 평화헌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요란하던 논의가 노골적인 군비증강론에 가려져 빛을 잃고 있으며 그의 정권은 공공연하게 '일본열도 불침항모설' '대한해협 봉쇄'를 주장하면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나가소네의 패전 후 이력은 한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그는 고향에서 극우적인 정치활동을 하면서 히로히토의 애마인 백마를 모방하여 자전거에 흰 페인트 칠을 해서 타고 다녔으며 파시즘 이론서들을 탐독했다. 그리고 그는 수십년 동안 일본 정계의 거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를 반성하는 언행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덴노헤이카'는 '유감'만을 말하고 '한국민의 불행'에 대해 하수인의 책임 정도밖에 없는 나가소네가 반성하고 계심한 데 이 세기적 정치 쇼의 핵심이 들어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천황이 끝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역사를 재현하겠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암시한 셈이다. 그리고 '총리대신'이 그의 신하로서 '대리반성'을 한 것은 진실과 충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신식민주의적 침략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방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두 나라의 언론은 날마다 한일관계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싣고 정계의 동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일관계를 '새시대'로 이끌려는 기구들의 움직임도 부산했다.

한일의원연맹은 8월 9일 도쿄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시정, 기술협력 추진, 청소년 교류 등 문화교류 추진, '86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상호협조 등을 다짐했다. 이

보다 4일 전인 8월 5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 Y. C.)와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 S. C. F.)은 전단을 통해 “제2의 일진회인 한일의원연맹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한편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한일 새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전망하는 데 지면과 전파를 아낌없이 활용했다. 각 신문은 대체로 이방문이 ‘환태평양시대’에 한국과 일본이 주역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무역역조의 시정과 첨단기술의 이전에 일본이 성의를 보이려고 촉구했다. KBS와 MBC는 일본에 취재반까지 파견하여 ‘한일 새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며 일본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소개했다. 8월 14일에 KBS가 「미래를 향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집중기획」에서 일본의 전수상 후꾸다는 “한일의 새시대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중요한 것은 상호연대이다. 두 나라는 공동운명체이므로 친구·친척이라는 입장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아시아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다나베 자민당 간사장대리는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새시대가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고토는 “중진국의 우등생인 한국이 일본과 손잡고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에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신부이며 소설 「25시」의 작가인 게오르규까지 동원되었다. “앞으로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서 아시아의 강국이 될 것이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일 두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처럼 화해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한편 KBS는 8·15특집으로 방영할 예정이었던 운동주시인의 일대기를 갑자기 철회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를 모호하게 처리한 「두 아버지」를 내보냈다. 광복절 밤에는 ‘빠가야로소동’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현해탄의 선상 대토론’이 방영되었다. 토론에 참석한 일본의 영화감독이 한국측 사회자에게 ‘바보 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은 장면은 KBS의 방영에서는 삭제되었고 일본의 TV아사히를 통해서도 그대로 전파에 실려나갔다. 이 사건은 일본의 지식인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의식에는 한국인은 “빠가야로”라는 생각이 아직도 잠재해 있음을 입증한 것이었다.

8월 15일 밤 MBC는 보도특집 「역사의 새 길을 연다」에서 삼국시대 이래의 한일 문화교류를 강조하

면서 임진왜란과 일제 36년을 한 마디로 처리해 버리고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창조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와 있다”고 역설하는 한편 “새시대를 열려는 통치자의 결단”을 찬양했다. 이 토론의 진행자는 “이 방문은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명실공히 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언론의 대대적인 ‘방일 찬양 캠페인’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의 민중운동단체와 기독교단체들 및 학생들의 방일반대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일찌기 7월 23일에 K. S. C. F., E. Y. C. 등 8개 기독교 청년단체가 방일반대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8월 15일에는 파고다공원 앞에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민족해방기념대회를 열러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길건너편에서 모임을 강행하고 방일반대 성명을 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의 20개 교파를 대표하는 교단장들은 8월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광복절 날에 가두시위로 발전한 학생들의 방일반대운동은 개강을 앞두고 가열되어 방일당일인 9월 6일에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데모가 벌어졌다. 방일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시위를 벌인 단체들을 대체로 열거해 보면, 전국목회자 정의 평화실천협의회(8월 21일), 한국가톨릭농민회(8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호남지역 인권협의회 참가자 일동(8월 27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8월 29일),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 실행위원단(9월 1일), 일본재침략저지 민족운동대회(9월 2일), 전남 함평과 무안의 기독교농민회 및 가톨릭농민회 회원 1백50여명(9월 2일), 목포에서 열린 기장 전남노회 선교대회에 참석한 교역자 2백여명(9월 3일), 가톨릭 서울대교구 대학생연합회 임원 15명(9월 3일부터 단식농성), 천주기독교청년협의회 회원 1백여명(9월 3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9월 4일) 등이다.

이와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방일을 결산하는 「한일정상 공동성명」은 “역사적 방일을 계기로 하여 자자손손에 걸친 한일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 성명은 “양국 의원연맹 간의 노력에 의하여 문화교류기금이 설립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의 산업기술협력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과학기술협력 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합

의하였다.”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 학술·교육·스포츠 등의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특히 21세기를 향하여 젊은 세대 간의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양국 간의 청소년교류를 가일층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성명은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태평양 제국 간의 각종 교류확대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 성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방일 이전에 한국의 언론과 정부 당국자들이 주장한 것, 즉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해 수입촉진단을 파견하고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의 문제가 양국민 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깊게 관련되어 있음에 유의하고” “과학기술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문화교류기금의 창설과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방일 여러날 전부터 흘러나온 다음과 같은 보도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와다나베 일본통합마료의장이…… 9월 29일부터 4일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알려졌다. [그의] 한국방문은 지난 79년 다케다 전통합마료의장의 방한 후 5년만으로 전대통령의 방일로 문을 열 ‘한일 새시대’에 안전보장면에서도 새로운 협조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일보」, 8월 17일자 2면).

8월 25일에는 “한일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추진해 오던 한일문화교류위원회 설치 구상을 한국측의 반대로 당분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보다 앞서 21일에 “일본정부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환에 관한 야당측의 합법성 여부 질의에 대해 조약 유무에 관계 없이 방위관계자의 상호방문, 방위문제에 관한 의견교환 등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보도들을 근거로 판단하면, 한국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 일본 영화와 대중가요의 공개적 상영과 공연, 즉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상륙을 주로 담당할 한일문화교류위원회 설치에 한국민의 거센 반일감정과 민중운동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비공식적인 공작’을 통해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방침으로 변경된 것 같다.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조약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두 나라에서 앞으로 두고 두고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두 나라의 정권담당자들은 지금 ‘새시대’ ‘환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식민통치의 최고책임자인 히로히토가 ‘유감’만을 읊조리고 있고 일본군국주의의 골수분자인 나카소네가 주창하는 ‘한일 새시대’를 믿으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민중은 경제적·군사적 대국과 약소국들이 뒤섞여 있는 태평양 연안에서 들려오는 ‘환태평양시대’라는 구호가 일제 치하의 ‘대동아공영권’의 재판이 아닌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친구’임을 강조하면서 물밑듯이 들어오는 일본의 신식민주의 세력 앞에서 민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 생활 속의 일본문화

우리는 1876년 개항으로부터 경술국치를 거쳐 해방에 이르기까지 자그만치 69년을 일제의 침탈 아래 시달려 왔다. 소위 '내선일체'란 미명아래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과 민중의 일상적인 생활 속까지 침투한 일본문화는, 해방 후 3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청산되지는커녕 TV, 잡지, 가요, 오락, 패션 등의 대중문화를 통하여 날로 그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더우기 눈앞에 닥친 한일 간의 문화교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지배를 공공연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일본문화가 어떤 양식으로 어느 정도로 침투되고 있는가를 시급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 우선 학술용어, 전문용어는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생활언어부터 살펴보자.

일식집에 들어선 한 중년신사가 "우선 자부동하고 시보리부터 주고 사시미 한 사라하고 히야시 잘된 맥주 두병..."을 달라고 주문한다. 또 양장점에 가면 "소테나시나 한소테 철은 지났으니 이제 나가소테로 하세요. 기지는 저 곤색 가라로 에리도 있게 하시구요" 하며 손님을 끌고 미장원에선 "아주머닌역시후까지보다 우찌마끼 고데를 하는 게 어울려요. 오늘 구찌베니 색깔도 좋으시고, 언제나 멋장이서, 기미이 좀 쓰세요"하고 아양이다.

건축현장에서는 으레 '오야'와 '노가다', '시다'라는 말이 쓰이고 '콘크리트'를 '공구리', 문틀을 '와꾸', 페인트칠을 '뽕기칠'이라고 쓴다.

이렇듯 음식점, 이발관, 미용실, 건축업, 기계, 양복점 외에도 인쇄·출판분야, 영화·방송 등 연애가에서도 수많은 일본말들이 쓰이고 있다. 이는 강압적으로 익힌 일본어를 4,50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60년대 이후 대외 종속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 일본에 크게 의존했던 기술 도입 및 기계 도입으로 인하여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사소통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이다.

그밖에도 오야붕, 꼬붕, 앓사리하다, 야지, 곤조통, 방카이, 기이당, 뽕강부린다, 빠리빠리하다 등 일제시대 때 익힌 일본어말고도 해방 이후 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나 일본식 한자까지도 마구 쓰고 있는 실정이다. '스탠드 바'나 '테이블 스피치'나 '핑크무드'나 하는 복합어와 '포르노' '텔레비', '인플레', '아파트' 따위의 일본식 영어가 그것이다.

말을 하다 막히면 흔히 '에 또', '마'가 튀어나오고, 관청의 한자어나 많은 법률용어 등은 일제시대의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즉, '엄금' '엄벌' '엄단' 식의 용어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세대(世帶), 재계(財界), 안내(案内), 명소(名所), 평판(評判), 전반(全般), 정찰(正札), 중재(仲裁), 시말서(始末書), 입장(立場) 등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어도 일본식이다.

(2) 어린이나 어른이나 만화를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 만화의 대부분이 일본만화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TV에서도 방영을 해 인기를 모았던 <들장미 소녀 캔디>, <은하철도 999> 외에도 <베르사이유의 장미>, <유리가면>, <유리의 성>, <남녀공학>, <올페스의 창> 등의 출판만화가 여고생들에게까지 인기가 있고, 일본 전래설화를 내용으로 했다고 해서 방영이 금지된 <천년여왕>은 VTR테이프 시중에 나돌고 있다. 이들 일본만화에는 일본 특유의 감상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고 으레 주인공은 뾰족한 코에 노랑머리를 한 서구풍의 인물이다. 이렇듯, 그림이나 내용 자체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 소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세살때부터 일본의 만화영화를 보고 자라난 세대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필통, 연필, 지우개 등 일제학용품과 만화시계를 사용하며, 전자오락에 매달린다.

여학생들은 머리핀, 목걸이 등 일제 악세사리로 치장을 하고 「논노」 「양양」 「세븐틴」 등의 패션잡지를 끼고 다닌다. 또한 「스크린」 「로드쇼」 「근대영화」 등의 인기와 더불어 일본의 영화배우, 가수마저도 동경의 대상이 되어 여고생들의 방을 장식하고 있다.

'연인이여'란 뜻의 「고비포오」란 노래가 종로나 신촌 등의 대학가 다방이나 디스코테크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며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카세트 테이프나 VTR 테이프 등이 판을 치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식스 운동화를 신고 남녀를 구분하기 힘든 옷과 머리모양을 한채, 허리에 소나나 산요 워크맨을 차고 거리를 활보한다. 그들이 주로 만나는 장소인 롯데리아는 내부장식, 실내 분위기, 서비스 형태, 이런 것들이 모두 일본풍이다. 출출하면 햄버거를 먹고, 심심하면 전자오락실에 간다. 세계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일본의 전자기술이 한국의 전자오락계도 장악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대중문화는 국내의 부도덕한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젊은이들과 어린이의 의식 속에 스며들어 역사적 감각을 상실한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3) 한편,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일본문화에의 향수에 젖어 있다. 따끈한 '정종'을 한잔 걸치고 얼큰해지면 '18번'이 나온다. 일본 유행가를 한두곡쯤은 불러 제치고, "홍도야 우지마라 오빠가 이~있다 짜 짜짜짜..." 노래소리에 맞추어 젓가락으로 상을 두드리기, 손뼉치기, 술잔 돌리기 등은 일본인들의 술버릇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시와 악을 겸비한 전통적인 기생과는 달리 현재 범람하고 있는 술집에서 술과 함께 몸을 파는 작부도 일본식이다. 나이트 클럽의 스트립쇼나 요즘 한창 말쑥이 되고 있는 사우나탕 등의 향락산업도 일본의 '색(색)의 문화'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최근에는 VTR이 전국에 보급되면서 퇴폐적인 포르노영화들이 가정과 여관 등지에 급속도로 범람하고 있는데 '포르노'라는 조어가 일본식이거나 일본에서 제작된 필름 수입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에서 수입된 도색문화는 대중을 정치적으로 우중화하려는 지배층의 대중문화정책에 의해 날로 번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셋만 모이면 남녀노소 구별없이 즐기는 '고스톱' '육백' '섯다' 등 화투놀이도 영락없는 일제의 잔재이다. 정월을 상징하는 소나무는 무사의 굳건한 기개를 뜻하고, 매조는 일본의 피꼬리이며, 사구리는 일본의 국화다. 싸리는 가을에 피는 일곱가지 풀이라 해서 일본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다. 특히 12월을 상징하는 비우산을 든 무사를 보면 섬찟해진다.

(4) 국민학교때부터 으레 소풍을 갈 때면 김밥을 준비했고, 추운 겨울 스케이트장에서 오맹국물로 몸을 녹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을 사먹은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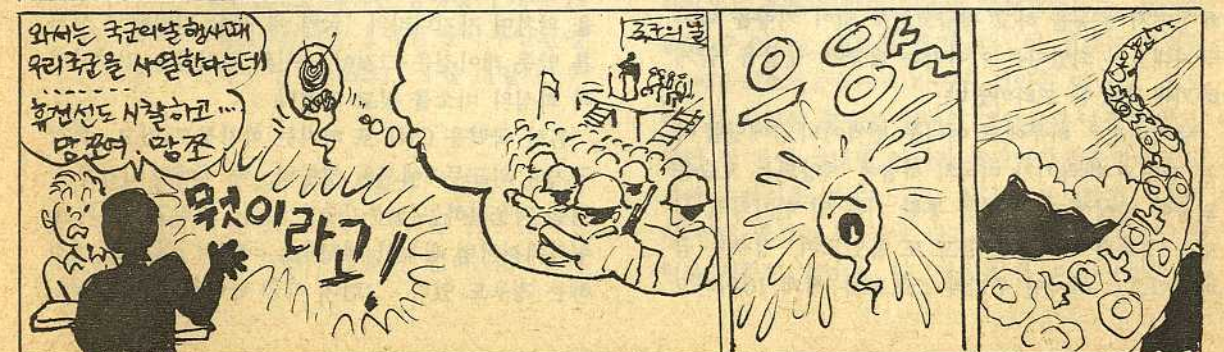
해방 이후 '日'자만 보아도 치를 떨던 우리들이었는데, 최근 대도시에는 일본음식점이 날로 늘고 있다. 왜식→화식→일식으로 간편도 변하고, 샷로시 우동이니 하는 간이음식점도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일본은 우리의 혀 밑까지 스며들어 온 것이다.

얼마 전에 부산의 어느 여성기관에서 일본에 갔다 오면서 가져온 전자담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어디 뱃통뿐인가. 혼수감의 시작이라고 하는 나쇼날 다리미로부터, 전기 프라이팬, 전기밥솥, 헤어 드라이어, 카메라, 카세트, 라디오,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시세이도화장품, 학용품, 스포츠용품, 악세사리, 의류, 시계류, 악기류 등이 '애용'되고 있다.

이렇듯 다방면에 걸친 일본문화의 침투는 반드시 경제적 침략을 동반하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문화는 이미 하나의 문화산업으로서 투자의 대상인 것이다.

일본에서의 한국문화 붐은 철저하게 계산된 장기적인 포석으로 일본 가요, 일본 영화 등 일본의 대중문화를 한국에 상륙시키기 위한 예비음모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서예, 꽃꽂이, 학술, 언론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한일간의 인적 교류와 공연 및 전시회를 통해 일본 문화는 날로 그 신식민주의적 문화 침투양상을 확대·심화할 것이며, 나아가 이땅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건강한 민족·민중문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 놀러 왔다 일본간 이야기



## 올림픽과 국력과 노동

김종철 (대표실행위원, 해직언론인)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7월 29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되어 8월 14일까지 17일간 열린 제23회 올림픽은 날마다 우리나라의 대중을 텔레비전 앞에 묶어둘 정도로 열기에 들뜬 행사였다. 해방 이후의 올림픽에서 한국인으로는 오직 양정모선수만이 76년의 몬트리얼 올림픽 레슬링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6개의 금메달이 쏟아짐으로써 정부 당국자들과 매스컴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몇 년 사이에 이처럼 눈부시게 '성장'한 데 대해 흥분했고 국민은 "또 금메달이 나왔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을 때마다 "만세/만세/"를 외치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했다.

잇달아 쏟아진 금메달이 대중을 더욱 사로잡은 까닭은 그 주인공들의 성장환경과 '불굴의 투지', 그리고 고난을 딛고 일어난 집념이 극적인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금메달을 딴 선수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었거나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과 사별한 우리의 '불우이웃'이고 부모가 살아 있는 선수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서민의 자녀들이었다. "어무이, 이제 고생 끝났습디" "아버지, 우리 이제 잘 살게 됐어요." 텔레비전으로 고국의 가족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던 금메달리스트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대체로 이런 것이었다. 말단 공무원인 선로보수원의 아들, 산림공무원의 딸, 간장배달부의 아들 -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서민의 자녀들임에 틀림없었고, 그들이 라면으로 주린 배를 채우면서 운동을 하고 정구코치도 없이 기량을 닦아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대중이 눈물을 쏟게 하기에 충분한 드라마였다.

텔레비전은 하루에도 여나문 번쩍이나 금메달을 따는 장면과 태극기가 미국의 하늘에 게양되는 모습을 되풀이 방영했고, 전파를 통한 가족 및 친지와와 상면을 녹화한 테이프를 틀고 또 틀었으며, 정부는 금메달만으로 따지면 우리의 스포츠가 세계 10위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영웅들'이 개선하는 날, 김포공항으로부터 태릉선수촌에 이르는 길에는 태극기가 물결쳤다. 이것만으로 보면 이제 한국은 세계의 '열강' 대열에 오른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광풍이 가라앉은 지금, 그 행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진정한 국력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스포츠 열기를 이용하여 권력이 대중을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먼저, 이 올림픽은 철두철미한 상업주의의 산물이었고 미국의 전국체전과 같은 성격을 띤 것이었다. 로스앤젤레스올림픽조직위원회(LA00C)는 이른바 '민간주도'라는 명분 아래 그리스로부터 봉송되는 성화를 거리당 단가를 매겨 '판매'했다. 이 위원회는 또 엄중한 경호를 자랑하면서도 2천50달러를 내는 사람에게는 특별임원증을 발급하여 경기장과 선수촌을 무상 출입하게 했다. 이 고도의 상술로 조직위원회가 거둔 수익은 1천5백만달러라고 한다. 그리고 올림픽경기를 독점중제한 ABC방송은 참가국 중 4번째로 많은 중계료인 3백50만 달러를 낸 한국 선수단의 입장 순간에 광고방송을 함으로써 상흔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그뿐 아니라 권투를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은 미국선수를 압도적으로 누르지 못하면 도저히 금메달을 딸 수 없었다. 시간마다 올라가는 성조기를 보고 미국의 국민들은 "아메리카 넘버원"을 외치며 자기나라의 '국력'에 새삼 감탄했고 선거를 앞둔 레이건은 그것이 자신의 치적임을 암시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흔히 국력을 GNP로 따지는 학자들도 있고, 특정 국가의 외교무대에서의 영향력, 즉 국제적 지위로 국력을 저울질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리고 이번의 올림픽에서처럼 획득한 메달수를 국력의 척도로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진정한 국력

은 어떤가? 경제학자나 통계학자들이 편의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GNP는 일본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외채는 4백억달러를 훨씬 넘어 세계의 '동메달권'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의 국력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런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력에는 무형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민주적 체제, 최대한의 평등을 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민중의 존재, 그리고 비록 국부가 빈약하더라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앞에서도 떳떳이 행동할 수 있는 국민적 자부심 - 이런 것이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 권력과 매스컴은 이번의 '금메달 풍작'이 우리의 국력을 대변하는듯이 대중을 흥분시키고, 기만하는 데 열중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의 메달 19개는 어떻게 수확된 것인가? 대표선수들의 합숙훈련이 시작된 것은 83년 1월 1 일이었다.

이 선수단에 투입된 자금은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다. 한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들인 경비가 있을 것이고 각 종목 경기단체 및 국고보조금도 포함될 것이다.

5백37일 훈련비만 계산하면 1백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된다. 체육회 83년도 예산 50억원과 84년도 예산 98억원에서 70퍼센트 가량이 대표 선수의 직접훈련비로 쓰여진 것이다.

LA대회에 참가하면서 여비, 숙식비, 활동비로 쓰인 파견비 8억원까지 합치면 모두 1백13억원이 소요됐다.

선수단 1명앞에 4천만원 가량이 쓰여진 것이다.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여자농구 12명, 여자핸드볼 15명을 계산하면 31개), 동메달 7개를 이 투자액과 상관관계로 따지면 금메달 1개에 19억원, 전체 메달(44개)에는 3억원 꼴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간스포츠』, 8월 14일자, 7면).

우리는 체육회 예산의 70퍼센트가 대표선수들의 훈련에 투입되고 금메달 1개에 투자된 돈이 19억원이라는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역

사상 최고의 금값이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국민대표' 또는 '국력신장용 선수들'에게 쓰이는 동안에 국민 대다수는 어떤 체육을 하고 있는가? 국민학교의 대부분이 운동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형편이며, 어른들 역시 등산·낚시·조기축구·테니스·탁구·골프 등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은 국민 전체의 평균체력이 우수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된' '국민대표들'의 체력 및 기술과는 무관하다.

또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표선수 훈련에 이처럼 막대한 돈이 퍼부어지는 동안에 기층민중인 농민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올해 농민들은 보리수매가 3퍼센트 인상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격분하고 있다. 그리고 한창 뛰어놀며 자라야 할 청소년기의 노동자들 수십만명은 식사시간과 용변시간 말고는 작업대 앞에 움츠리고 앉거나 서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도언론은 한국노동자의 82년 주평균노동시간이 53.7시간으로 세계의 금메달값이라면서 '한국인의 근면'을 자랑한 바 있다.

이번에 메달을 딴 선수들은 미쳐 30세도 되기 전에 종신연금이라는 특혜와 지원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전을 부여받았다. 금메달리스트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기금이 달마다 60만원씩 지급되며, 재벌의 경영자인 경기협회 회장이 거액의 기금을 낸 단체에 속하는 어떤 선수는 60만원을 더 받아, 평생 최저월수 1백20만원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뿐인가.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지원금 3천만원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밖에 직장에서는 이들을 특진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받는 혜택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3억원이 넘는다고 말한다.

이제 이곳에서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결사적으로 운동만 하면 신홍의 상류계층으로 수직상승할 수 있다는 신화가 생겨났다. 이 신화는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에게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프로야구의 탁월한 투수는 역대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공만 잘 차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하여 단기간에 수억원을 벌 수 있다. 최근에 프로화된 씨름에서 어떤 장사는 한 해에 광고모델료까지 합쳐 수천만원을 거뜬히 벌었다. 이 '영웅들'은 어린이들은 물

론이고 대중의 우상이 되어 있다.

이 우상들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동안에 수백만의 노동자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도 이들의 소득의 몇십분의 1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반도체공장에 14년을 근속한 노동자의 월급은 15만 1천 2백80원이고 미싱경력 3년반(20세)의 노동자는 16만 1천 4백69원을 받는다(「민주노동」 제 4호, 10~11면). 이것도 실수령액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대중의 열광도 환호도 없다. 오직 끝없는 노동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뿐. 그러나 이처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출한 몇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어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마스크는 그를 '영웅'으로 떠받든다. 그가 '영웅'이 되어 그 지겨운 일터를 떠난 뒤에도 그의 동료노동자들은 열악한 삶의 터전을 벗어날 길이 없다.

권투선수가 주먹 한 방을 날리면 몇십만원, 프로야구선수가 최우수선수로 뽑히면 미끈한 승용차가 한 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평생 웬만한 회사의 사장 봉급을 손 하나 까딱않고 받을 수 있는 이 시대,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이 공무원이나 부동산업자와 결탁하여 사전에 정보를 빼내고 교묘하게 환지를 하고, 마늘을 수십억원어치씩 매점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이 풍토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떨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농사일과 공장노동으로 뼈골이 휘어버린 어버이들은 "내 자식들에게는 이 지겨운 직업을 물려주지 않고 권력자나 재산가나 운동선수로 기르겠다"고 다짐할 것이다. 흔히 가장 신성하다고 말하는 노동이 "가장 추악하고 괴롭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이런 세태 속에서도 자신의 일터를 지키며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기층민중을 우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자료실 안내

본 협의회에서는 민중문화운동 전반에 관한 자료실을 개설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학·음악·미술·영화·연극·무용 등 예술부분과 더불어 언론·출판·종교 분야까지 포괄하는 자료실 설치를 계기로 올바른 문화운동의 방향 정립을 위한 깊이있는 토론이 기대됩니다. 자료실은 회원 여러분 공동의 자산입니다.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과 더불어 본 협의회와 자료실이 문화운동의 도서관으로서 이론적 기능에 값하도록 개인 소장자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리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체제가 키워낸 한 '영웅들'인 운동선수나 벼락부자들의 빛에 가려져서 언제나 외롭고 고달프다.

이 시대는 일하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그들의 땀의 결실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채 독점하고 즐기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의 보람과 기쁨을 외면하고 일확천금의 꿈에 사로잡히거나 '영웅'이 되려고 발버둥칠 때 그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다. 지배세력은 이 노동의 가치전도, 그리고 투기와 스포츠와 섹스에 미취되어 있는 대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대중조작술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체제가 기른 대표선수들을 무조건 매도할 수는 없다. 그들의 인간적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투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찬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진정한 영웅으로 착각하고, 일하는 민중을 경멸하고, 국력의 선전도구가 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중체육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파트에 갇혀 사는 어린이들과 노인들, 판자촌에서 집안일에 얽매여 있는 여성들, 그리고 들판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특권계층의 한 사람이 평균 수백명의 잔디밭을 차지하고 즐기는 골프, 평생회원권이 1천만원을 넘는다는 헬스클럽, 단 1백 몇명의 대표선수 훈련에만 치우치는 체육행정 등이 시정되지 않는 한, 민중이 체육을 통해 조금이라도 체력을 향상시키고, 내일의 성장과 일을 위한 활력소를 얻기 위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대중 조작으로서의 올림픽문화

「올림픽 개선 국민축제」 방영을 보고

김남일 (회원, 소설가)

지난 8월 25일 KBS와 MBC는 3시간에 걸쳐 「올림픽 개선 국민축제」를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토요일 저녁에 전국에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길고 지루하게 진행되어, 마스크에 의해 과열된 올림픽 분위기에 식상한 시청자들을 짜증나게 했다. KBS와 MBC가 각각 6천만원의 경비를 들여 제작한 소위 「국민축제」는 제 1부와 제 2부로 나뉘어 MBC와 KBS가 번갈아 가며 진행을 했고 카메라는 서로 달리 동원되어 TV의 영상은 다르게 처리되었다.

2천명의 대형 합창단과 조용필, 이주일 등의 인기 연예인이 출연한 이 대형 쇼는 이미 가라앉은 올림픽 분위기를 억지로 다시 부추기려는 의도만 앞섰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자의 말과 화면이 맞지 않는 미숙한 진행과 불필요한 감탄사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마치 「황국신민서사」를 외는듯이 올림픽 찬양 밖에 모르는 출연자들의 유치한 말솜씨는 토요일 저녁을 TV로 즐기려던 시청자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혔다.

불필요하게 폭죽을 터뜨리는 등 TV가 고질적으로 지닌 물질주의·물량주의적 병폐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난 이 프로그램은 시간·등장 인원·경비 면에서 TV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엄청난 대중문화의 공세를 통해서 제 5공화국의 정치 문화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3시간의 지루한 생방송 중계 이외에도 KBS와 MBC가 이 프로그램의 준비 상황까지도 사전에 광고 방송한 '과잉 친절'은 이 대형 쇼가 음험한 의도 아래에서 계획된 것임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쓸데없이 많은 돈을 들여(이 돈은 시청자들의 시청료와 TV 광고를 보고 시청자가 소비하는 상품의 가격의 일부이다) 이렇듯 유치하고 걸만 번지르한 대형 쇼를, 그리고 그것도 한참 지난 올림픽 분위기와 결부시켜, 제작하고 방영하는 그 '음험한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히틀러 파쇼 치하의 베를린 올림픽이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

치집단은 그들의 파시즘체제의 존속에 필요한 정치적 조작의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대중 동원에 이용하였다. 나치는 권력 장악 후 중앙집권적 체육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스포츠, 경기 단체, 청소년 단체, 학교 체육프로그램을 통제하였다. 1933년에는 차머문트오스텐이라는 전직 군인을 국가스포츠 장관에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나치의 파시즘 체제에서 체육은 대중 동원을 위한 정치적 조작수단으로서 철저히 변질되었다. 체육은 지·덕·체의 균등한 발달을 통한 개인의 자기 실현의 한 요소라는 본래의 기능이 무시되고 파시스트에게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써 간주되어 군국주의적 인간 양성에 따른 군사적 필요를 위해서 변형되었다. 즉 체육은 파시즘이 요구하는 병역의 의무 속에 일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가 된 체육은 히틀러 유겐트, 소녀단, 유스호스텔 연맹, 전원기숙사연맹 등에서 주된 과목이 되었다.

스포츠를 이용한 나치의 대중조작이 절정에 이른 것은 1936년의 베를린올림픽이었다. 일제하의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나라 없는 설움을 맛보아야 했던 이 베를린 올림픽은 정치와 관련된 올림픽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게 되었다. 나치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요소인 인종적 우월주의(게르만 아리안 인종이 다른 열등인종보다 우세하다는 허위 의식이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소수 민족들이 차별·추방·대량학살되었다)를 바탕으로 하여 대내적으로는 사회통합수단으로, 대외적으로는 나치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려던 히틀러 파쇼집단은 근대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올림픽을 그들의 선전도구로 삼았다. 화려한 개막식, 물결치는 깃발, 타오르는 햇불, 휘황찬란한 수천명의 행진, 웅장한 공개시범운동, 선동적 연설을 통하여 나치 파시즘의 정치적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다. 베를린 올림픽의 우승자는 독일에서 파시즘이 요구하는 영웅으로 찬양되었으며 나치체제의 억압 아래에 있는 대중의 환상을 대리적으로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올림픽을 비열한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는 IOC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거행된 제11회 베를린올림픽의 허구성은 나치 파시스트들에 의해 감행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1940년의 제12회 대회와 1944년의 제13회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는 엄연한 사실에 의해 입증되었다. 물론 올림픽 자체가 '올림픽 참가 선수는 결코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출전한다'라는 공식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치색을 띠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나치가 올림픽을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했다는 것은 어쩌면 올림픽 자체에 숨어 있는 모순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즉 보불전쟁(1870~1871)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한 후 프랑스 국민의 저하된 사기를 부추켜 세우기 위한 쿠베르탱의 민족주의적 노력의 결과로 근대올림픽이 시작되었으며, 국가 간의 경쟁이 참가 선수들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경기 순위와 점수에 대해 국가와 매스컴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NOC들이 각기 자국의 위신과 명예를 추구하고(NOC는 자국을 대표해서 IOC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IOC를 대표해서 자국과 관계를 맺는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기 주최국이 그 이전의 경기 주최국보다 개막식과 폐막식, 경기 시설, 숙박 시설 등의 건축물, 교통·통신·관광 등의 서비스 면에서 더 낮게 하려고 애쓴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들은 근대 올림픽의 정치적 속성을 말해준다. 1948년 런던 올림픽 때 패전국인 독일·일본 등의 축출 사건,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시상대에서의 블랙파워 시위 사건과 정부 측의 반체제 학생의 대량살상사건, 그리고 1970년에는 아직도 인종차별을 고수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명과 자격 정지결의, 그리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참가 보이코트와 올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에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 및 동구 강호들의 보이코트와 '우정 '84대회'의 개최 등이 올림픽의 정치적 속성을 잘 설명해준다.

올림픽 경기가 걸으며 내건 인류의 평화와 우애라는 올림픽즘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이며 선진 강대국들이나 사회주의국가들, 그리고 대내적으로 독

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올림픽을 통해 히틀러가 시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올림픽 규모의 거대화와 올림픽 유치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 등으로, 예컨대 1976년 몬트리얼 올림픽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국가가 얼마만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는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는 그러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아니 그런 부담을 국민에게 지운 채 올림픽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4백억 불이 넘는 외채의 부담이 있고 더우기 88년의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 야기될 것이 우려되는 남북한 당국의 국제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의 부담이 있지만, 올림픽을 유치한 집권층은 나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작된 올림픽 열기에 편승하는 TV의 상업주의와 센세이셔널리즘이다. 원래 올림픽 재난의 주범은 TV 위성중계이다. 스포츠와 올림픽의 정치화 경향은 TV의 기술 진보와 비례하여 증대되어 왔다. 현장의 경기상황이나 시상식 광경의 위성중계는 다른 매스미디어에 비해서 TV만이 지닐 수 있는 유리한 특성인데, TV를 통제하는 정치적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TV의 상업주의와 센세이셔널리즘을 수행하는 것이다. TV의 올림픽 방영 시간은 스포츠방영, 광고방송, 방송국 자체의 광고방송으로 나누어 지는데 실제 스포츠방영은 녹화되어 되풀이 방송되거나 뉴스시간 등에서 요약되는 것을 제외하면 실로 미미한 것이다. (지난번 올림픽 기간 중 메달을 시상하는 장면은 하루에도 10여회 이상이나 되풀이 되었다.) 또한 시청자들은 경기 시청 도중에 무분별하게 튀어나오는 광고방송을 참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올림픽 방송의 광고비는 분당 50만달러였다고 한다. TV는 이러한 광고비가 오로지 그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방송이 아닌 KBS마저 협조 내지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광고방송을 하고 있다. 더구나 프로그램 편성권이나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기능이 정부의 통제와 감시 아래에 있으므로 올림픽과 스포츠 방송의 정치적 의도는 TV의 상업주의와 부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올림픽 자체가 아닌 선수단 개선을 위한 환영쇼, 그리고 이에 대한 방송국의 사전 광고방송에도 적나라하게 드러

러나고 있다.

정치적 외교 수단의 무력함(이는 히틀러의 경우에서 보듯이 집권 당사자들의 정치적 비정통성과 사이비 합법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을 스포츠 외교로 보전하듯이, 매스컴이 당연히 해야 할 '사실 보도'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스포츠 열기와 이에 편승하는 대중문화의 방송으로 대치되고 있다.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와 통치수단으로서의 대중문화가 TV를 통해서 야합한 것이 소위 앞에서 말한「올림픽 개설킨 국민축제」인 것이다. 그 의도가 열악한 만큼 그 내용이 빈약하고 치졸했다는 것은 이미 밝혔거니와 이것은 통치수단으로 제5공화국에서 활용되는 TV와 이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전체에서 드러나는 성격이다. 예컨대 소위「국민축제」를 방영하는 TV 화면에는 여의도에 직접 참가한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주로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이 대부분인 이 관중들은 거의가 다 여의도 안에서 인파를 형성하여 돌아 다닐 뿐 실제로「국민축제」를 관람하며 즐기는 사람의 수는 의외로 적었다. 이 사실은 정치적 동원수단으로서의 대중문화는 민중을 집결시키는 힘이 실질적으로 전혀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통치수단으로서의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각종 유희와 행사는 단지 마취적 역할만을 하는 대중의 아편일 뿐이고, 내일의 노동을 위한 오늘의 휴식이 결코 되지 못하는 비생산적 소비일 뿐이다. 이 대중문화 안에서 대중은 대중적 인기를 얻은 인기 연예인이나 체육인을 통해 환상적으로 자기만족을 얻음으로써, 개인과 전체가 진정하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관심을 왜곡·소비하게 되며 정치적 조작과 문화적 통합에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노예가 되고 만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군사력·경찰력과 그 밖의 강제적 행정력에 버금가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 폭력이며 직접적 물리적 폭력을 대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어무이, 이제는 고생이 다 끝났심더"라는 어느 금메달리스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기 연예인과 정상 체육인들이 누리는 경제적 인 부와 사회적 명예에 TV를 매개로 도취된 대중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가치 분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제도 안에서 지닐 수밖에 없는 자연스런 정치적 불만을, 소위 대중 스타들과의 환상적 접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소시킬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정치 과정

에서 정상적으로 분배되지 못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자원은 대중문화를 통해 환상적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개·폐회식에서 그들의 대중기수가 그들의 대중가요를 불렀던 것과는 이별의「국민축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TV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의 기능은 상업적인 면이 적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보다 더욱더 정치적인 면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8월 15일 광복절 특집물로 제작된, 항일 민족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돌연 취소되고, 또 KBS의 대하 드라마「독립문」이 일시 중단 되어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인 9월 16일 이후에 방영이 재개된다는 것 모두가「국민축제」와는 다른 측면에서 대중문화의 정치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방일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여기서 대통령의 방일 자체의 정치적 정당성이나 효과를 자세히 따질 필요는 없겠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의 프로스포츠(이는 독점자본에 연관되어 있다)와 올림픽을 위시한 아마추어스포츠(이는 사회적 총자본의 대리인이거나 그와 협조적 경쟁자인 국가자본과 연관되어 있다)의 열기를 조장하고 이를 대중문화의 중요 요소로 끌어 들이는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와 그러한 반일 드라마의 취소 및 중단이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다시 확인되는 것은 지난 달 29일 노태우 서울 올림픽조직위원장이 밝힌 '국제스포츠잔치'의 행사 내역이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개장 기념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진다는 것이다. IOC인사들과 국제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내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사 기간 동안 각종 문화행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9월 3일 현재 2만여 채의 가옥이 침수하고 9만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1백26명의 사망·실종자와 1백52억의 재산 피해를 낸 이번 '예기치 못한 예상된' 홍수의 예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림픽 준비에만 몰두한 서울시 당국자들이 이 행사때문에 더욱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기념행사」의 일정은 굳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하는 반면에 선거 일정은 오리무중으로 감추는 이 땅의 정치문화와 대중문화의 화간(和姦)은 실로 가스로운 것이면서도 독약같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심각한 정치공해이며 동시에 문화 오염인 것이다.



## 예술과 언론을 탄압하는 검열제도를

### 연우무대에 대한

극단 연우무대는 지난 7월 7·8일 남산드라마센터에서 공해풀이 마당극 「나의 살던 고향은…」(연우 공동구성, 임진택 연출)을 공연했다. 그런데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이 공연이 심의대본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경위서 및 공연대본의 제출을 요구했고(7월 9일), 12일에는 “사전 심의에서 통과된 대본과 전혀 다른 장면으로 구성됨은 물론 내용중 규제되어야 할 부분이 허다하다”는 이유로 각본심사합격증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극단측에서는 7월 21일 이를 반납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연우무대는 6월초에 확정되어 있던 대한민국연극제 참가를 위해 「한씨연대기」(황석영 작, 김석만 연출, 9월 7일~12일, 문예회관대극장)의 구체적인 연습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연극제를 주관하는 문예진흥원 주변에서는 “7월말부터 연우무대가 공연정지를 받아 연극제 참가가 어렵게 되었다, 진흥원측에서는 연극제의 일정이 이미 공고되었기에 문공부와 협의의 시도했으나, 문공부의 담당자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그리고 8월 7일 서울특별시는 연우무대에 대해 공연법 제17조1항2호 위반 및 동법 제17조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6개월(84. 8. 10~85. 2. 9) 공연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간신문들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경위를 보도했으며, 연극제 참가와 예술창작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평들도 나왔다. 연우무대에서도 「공연정지처분에 따른 연우무대의 입장」이라는 글(8월 21일)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서울시의 극단 연우무대 「6개월 공연정지처분」 행정조치는 즉시 시정되기를 바란다.
- 창작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하며, 검열은 관객과 연극인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예술행위에 관권이 개입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 연극의 주체는 관객, 더 나아가 국민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 연우무대는 보다 나은 인간적 삶을 위해서라면 현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직하고도 예술적인 거울이기를 온몸으로 희망한다.

또한, 관객들의 모임인 ‘추임새’에서도 「한씨연대기」 공연예정일(9. 7~12)에 맞춰 「한씨연대기의 일방적 공연취소에 대한 관객의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이 성명을 통해 “애매한 심의기준에 의한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객이 내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극제에서 “일반 관객에게 뚜렷한 해명도 없이 갑자기 공연을 취소하는 것은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연우무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모든 행위에 있어 절대 위축되지 않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공연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연을 직접 수용한 관객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민중문화운동협의회는 연우무대의 6개월 공연정지가 단순히 한 극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의 모순된 문화현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를 밝히는 한편 사건해결을 위한 투쟁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서울시가 적용법규로 내세우고 있는 공연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심사에 합격한 각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할 때”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이를 위반했을 때 “6개월이하의 기간 모든 공연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심의대본과 기본골격만 같으면 실연심사는 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 철폐하라!

### 6개월 공연정지처분을 보고

「나의 살던 고향은…」의 경우에도 우리 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전심의대본에는 공해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다는 의도와 실제공연에 보여졌던 장면들이 이미 모두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유례없는 공연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그것도 1개월이나 뒤늦게 내렸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 적용이전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서울시 또는 그 지휘관청인 문공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공부의 담당자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하기에 바빴다.

그러면 그 담당자에게 압력을 가한 곳은 어디인가? 모기관의 문화담당자를 자처하는 사람을 만난 우리 협의회는 한 회원은 이번 일에는 그 기관이 관계했음을 그가 시사했다고 전했다. 역시 그를 만나야 했던 또 다른 회원도 “연우가 6개월 뒤에라도 공연을 하려면 떠들지 말고 좀 조용하게 있어야 할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 대공업무만을 담당 하겠다던 기관이 한 극단의 공연정지처분에까지 관여하다니! 유신체제하에서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고문과 협박을 통한 불신감조성으로 악명이 높았던 그 기관의 망령이 되살아났단 말인가?

그 회원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렇다라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 저들은 한편으로 자율화를 부르짖으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섹스와 스포츠등의 대중문화로 잠재우려 해도 깨어나는 자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순수예술’로 잠재우고… 그런데도 사회현실을 연극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극단이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많은 관객층이 형성되어 가니, 그들은 위와 같은 치졸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활동을 와해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연정지처분에 숨겨진 저들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우리 협의회는 앞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큰 공연법 제14조의 2, 즉 ‘사전심의’에 관한 조항과 제17조의 처벌조항을 철폐할 것과 아주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언론과 예술에 대한 기관원의 검열을 중지할 것을 주장한다.

만약 입법절차의 비민주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심의 절차를 무시하고서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다. 저들이 이미 탄압의 마개를 드러낸 이상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일제시대에 주어진 한계안에서 예술활동을 통해 민족운동을 하겠다던 문화주의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 친일 민족반역자, 분단을 자초한 매관세력들, 독재정력에 아부하는 사이비들, 이 모든 현실에 눈감는 순수주의자들, 이 모두가 그들의 후계자이다.

우리의 상대가 결코 만만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민족연극·민중문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눈들이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또한 그들이 있기에 이 싸움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싸움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문화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 때이다.

1. 사전 검열제도를 철폐하라!  
— 표현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 쟁취한다.
2. 언론·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찰을 즉각 중지하라!  
— 사찰내용을 서로서로 폭로한다.

# 현단계 문화운동의 과제

문화운동이라는 이름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문화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80년 이후 문화운동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지도 몇년이 지났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현재의 문화패에게 주어진 몇 가지 과제를 점검해 보고 토론에 붙임으로써 지금까지의 활동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 1. 현 문화상황에 대한 점검

우리의 문화상황의 역사적 배경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민중적 문화전통의 단절과 자기 열등감을 조장하는 식민주의 문화관이 자리잡고 있다. 해방 이후 여기에 근거하여 손쉽게 침입한 소비와 향락위주의 미군(GI)문화는 현재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중문화의 온상이 되었다.

근·현대사를 통하여 양반·지주·매관자본가로 하나의 특권층을 형성해온 독점재벌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가들과 결탁하여 상업주의문화와 세계문화의 동질화를 골자로 하는 문화제국주의를 적극 조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가 아니라 대외의존과 기만정책으로 취약한 자기기반을 유지하려는 현 군사정권은 국민에 대한 파쇼적 억압의 보조역할로 문화조작을 이용한다. 83, 4년에 들어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 i) 자율화조치로 문화선전정책의 강화: 정권안정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느끼고 억압일변도의 강압책에 한계를 절감한 현정권은 대중매체의 완전한 장악을 기반으로 대중조작을 강화하고 있다.
- ii) 컬러TV방영, 올림픽유치, 프로스포츠 등으로 미국의 대량소비 문화·식민주의문화의 선전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 iii) 신군국주의 일본과 정권차원에서의 유착은 문화교류라는 명분아래 신식민주의적 문화관에 입각한 일본문화의 재침략을 방조하고 있다.
- iv) 정치적·경제적 불만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려는 지식인 또는 문화예술인에게는 협박과 회유책을 동시에 씌워서 그들을 대중과 분리시키고 있다. 관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해직교수·언론인의 복직, 지방문화육성책 등을 내세우면서 비공식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 2. 문화운동론에 대한 검토

### 1) 이념적 목표

전반적 정치·사회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국내의 독재권력과 맞서는 민주화운동이며, 식식민주의적 침략을 분쇄하는 민족운동이며, 사회적 불평등 제거하여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민중해방운동이자, 이 모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인간해방운동이다.

### 2) 문화운동의 역사

왜래문화의 침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60년대말부터 민속극 부흥운동은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만도 훌륭한 문화투쟁이었다.

70년대를 통한 탈춤운동은 민중운동이라는 전반적인 사회운동과의 연대에서, 마당극운동은 현실풍자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문화운동의 사례가 되었고 그 참여자들은 문화패의 근간이 되었다.

유신말기 공개정치운동권의 침체와 현장운동화 경향은 문화패의 현장문화활동을 촉진시켰다.

80년 봄의 민중항쟁기간에는 많은 문화패들이 정치운동의 일선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후 침체국면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외곽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또한 70년대 말의 현장지향적인 활동도 계속 진행되어 생활춘극(극놀이)·탈놀이·풍물놀이·얼굴그리기 등 많은 현장문화활동의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미술(판화·공동벽화·만화), 문학(동인지) 등 다른 예술분야와 사진·슬라이드·영화·비디오·카세트 등의 매체부분에도 문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각 대학축제에서 대동놀이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도 공동체의식의 표출이라는 문화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3) 80년 민중항쟁기 이후의 반성

80년 민중항쟁, 특히 광주에서의 항쟁은 단순한 명분상의 투쟁이 아니라 민중의 광범위한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실패의 원인은 그 이전의 운동권이 관념적으로 철저함은 있었으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도노선에 혼란이 일어난 데서 찾아지고 있다. 반면에 기존운동조직의 와해 이후 문화패조직의 투쟁은 일반시민의 참여화된 정치의식을 정서적으로 통일시켜 줌으로써 후속작업을 계속한 점도 있었다.

그러므로 문화의 무기를 가지고 민중의 삶에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물질적·사회적 기반을 가짐과 동시에 대중성의 획득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생존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4) 대중성 획득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제기

‘대중성’ 또는 ‘대중적 기반의 확보’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상충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84년 초에 제기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 70년대 문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i) 연회부분뿐만 아니라 계(契)형식의 조합과 연결된 생산공동체운동까지도 문화운동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ii) 문학부문에서도 표현의 서사적 구조의 개발과 공동작업을 통한 연행성을 확보해야 한다.

iii) 문화패조직은 다른 운동조직의 부수적인 부분이기를 지양하고 가족단위까지의 구체적인 활동현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iv) 대중문화의 범람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유통구조의 재편성을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 (나) 다른 운동권과의 연계선상에서

i) 대중과의 접촉을 통해 저변확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집단적 저항성을 길러 정치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ii) 상황이 어려워졌을때 참여화될 수 밖에 없었던 운동세력(유신말기와 5.17직후에 지하화된 학생운동 등)의 참여화된 정치의식을 정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대중의 불신감이 조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iii) 대중과의 접촉이 지배세력이나 대중과의 영합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의 조직과 운동기구를 통해 확고한 운동성을 가져야 하며, 그 운동조직이 다른 주변운동권과 배타적관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 (다) 활동방법의 측면에서

i) 다기 다양한 대중적 표현매체들을 전통문화의 민중성에 기초를 두고 능동적으로 활 함으로써 대중에게 낯설지 않게 접근한다.

ii) 대중집근은 일선 생산담당계층의 생활문화(문화실태조사 등을 통한)에 기반을 두고, 즉 현장성을 확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iii) 정치운동 일선에서 대중선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매체·이론(현장전문공연·즉흥춘극·만화·노래·영화·테이프) 등을 개발한다.

iv) 다른 운동권(농민·노동자·도시빈민·지식인)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방법들을 제공한다.

(라) 활동영역의 측면에서

i) 공개적인 문화운동기구를 통한 활동: 문화운동권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든다. 지배문화의 공격에 대한 응전, 새로운 문화유통구조의 형성, 각 지역별 문화운동 성과의 흡수 및 후발지역에의 보급, 다른 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 등이 있다.

ii) 각 문화장르(매체)의 독자적인 모임을 통한 활동 및 이들의 연대활동: 탈춤·민요·풍물·노래·미술·문학·비디오·출판 등의 전문적 기능을 수련하고, 대중노선을 채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소재적·관념적 차원을 넘어서서 일상적·생산적 소재를 택해야 하며, 대의의 올바른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동권 내의 인식과 감수성에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중의 일반적 정서는 지배문화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iii) 현장문화활동: 생활기반을 생산현장으로 옮겼을 경우, 생활문화집단(두레패)의 형성을 도와줄 경우, 현장순회공연을 가지는 경우등이 있는데, 이 모두가 문화운동의 현장(직장·단위공장·농촌부락·단체·학교·지역 등의 생활근거지)에서 공동으로 생계수단을 해결함(문화적 기능이나 생산물을 팔)으로써 일과 놀이와 싸움을 일치시켜야 한다.

### 3. 84년 상반기활동의 반성

반성의 근거로서는 앞의 운동론에서의 각 항에 따라 검토할 수 있겠다.

#### 1) 민중문화운동협의회의 발족

(가)의 iii), (나)의 iii), (라)의 i)에서의 요청과 정치적 상황이 호전된 데 기인했다. 지금까지의 활동은 치밀한 조직체로서의 운영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공개창구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위의 원칙론에 입각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 2) 역량 배치와 역할 분담

상반기에는 관련단체들의 공개행사가 많았던 관계로 문화패에게는 계획에 없는 화급한 지원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각 장르별 개별단체들의 독자적인 활동욕구와 필요('라'의 ii))도 높아졌다.

이 두 가지 방향은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니면서도 역량 배치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운동론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이 요청된다.

#### 3) 운동기반의 문제

운동기반을 생활기반과 일치시키는 일, 대중적 문화유통구조를 형성하는 일 등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상반기의 문화운동에서는 별로 검토해 보지도 못한 주제이다. 그만큼 장기간의 노력과 각자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것은 우리문화운동의 활로라고 밝혀졌던 만큼 구체적인 활동현장과 방법론을 확보하고 실천적인 성과를 쌓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새로운 항일 민족운동의 태동

9월 6일에 강행된 전두환씨의 방일을 저지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투쟁이 여러가지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범민족적으로 확산되어 지속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즈음하여 개신교 20개 교단장회의, 민중민주운동협의회,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 명동천주교청년단체연합회, 대한가톨릭학생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호남지역 인권선교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었고 8월 18일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주최로 홍사단 강당에서 항일 민족해방운동을 주제로 한 성유보(해직 언론인)씨의 강연이 있었다.

한편 8월 29일에는 민중문화운동협의회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협동작업에 의해 홍제동 성당에서 '참 민족해방을 위한 거리극'이 벌어졌고 이튿날 명동 천주교성당에서는 '동북아 정세 속의 한일관계'와 '한일 경제관계를 보는 시각과 한일 경제협력의 논리'에 대하여 각기 이영희교수(한양대)와 유인호교수(중앙대)의 강연이 있었다. 이러한 행사와 병행하여 학생들의 방일 반대운동이 갖가지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학내 자유언론을 통해 전두환씨의 매국적 방일과 한일관계의 허구성을 파헤쳐 온 학생운동권은 일본공사관에 투석을 하고 일장기를 태우는 등의 상징적이고 강력한 항일 의사표시와 더불어 가두홍보활동을 벌였다.

9월 1일에는 사회선교협의회 및 연관 단체 주체로 서울제일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관의 폭력적 개입으로 유산되었다. 그러나 항일의 열기는 식기는커녕 더욱 치솟아 "일본재침략저지 민족운동대회"라는 80년대 초유의 범민족적 운동단체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9월 2일 함석헌선생을 비롯한 재야·가톨릭·개신교·문인·해직언론인·노동운동·농촌운동·청년운동가들과 민중문화운동협의회의 실행위원인 황석영·김중철·여익구·채광석·김학민·최민화씨 등 77인의 서명이 든 「새로운 항일의 깃발을 드높이자」라는 성명서로 시작된 80년대의 범민족적 항일운동은 77인의 서명자들이 9월 3일부터 기독교회관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감에 따라 점차 고조되었다.

9월 6일 오전 9시 30분 전두환씨의 방일을 적극적으 저지하기 위해서 세종로 성공회 성당 옆뜰에서 매국방일저지 켈기대회가 문익환목사 등 30인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서명자 중 가택연금·연행·보호 중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이 기관의 감시를 교묘히 피해서 개최한 이 대회에서는 일본재침략저지민족운동대회의 성명서가 대회장인 문익환목사에 의해 낭독되었고 일장기의 화형식이 있던 후 만세 삼창이 있었다. 이들은 간략한 의식이 끝난 후 '매국방일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덕수궁 앞 차도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고영근목사가 주도하는 대중집회가 같은 날 10시에 옛 대한일보 사옥 앞에서 벌어졌다.

이날 전두환씨는 다른 때와는 달리 가두에서의 '관제 행사'도 없이 황급히 출국했으며, 이번 민족운동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전두환씨가 귀국할 때까지 강제 연금·연행을 당했다. 고영근목사가 주도한 대중집회에 참석한 황인성씨(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간사)가 7일 거주지 경찰서인 영등포서에서 기관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많은 민족·민주 인사들이 이번 전두환씨의 방일을 계기로 모든 활동에서 불법적인 제약을 받았다.

77인의 서명으로 점화된 일본재침략저지 민족운동대회는 전두환씨의 방일 반대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과거의 청산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상호 평등과 우애가 진정하고 실질적으로 달성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노동운동·농민운동·학생운동을 망라한 범민족적 항일투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사무실 열어

지난 7월 29일에 발족한 민중민주운동협의회는 8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2가의 서울빌딩 700호에서 2백여명의 민중·민주운동가들과 재야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상임대표위원 김동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모임에서 전동아일보 편집국장 송건호선생은 "민민협은 민중·민주운동의 구심점이 되어 구국운동을 전

개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돈명변호사는 "젊은이들이 이 단체를 구성하여 산만했던 힘을 하나로 묶어 우리의 갈 길을 바로잡아 나가게 됐다"는 요지의 치사를 했다.

민민협은 이날의 모임에서 「진정한 민족해방이여! 민족정기여!」라는 성명서를 통해 "① 우리 민족문제는 강대국간의 비밀외교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특정정권의 유지를 위한 편의적 도구가 되어도 안되며 민족의 자발적 참여에 기여해야 한다 ② 우리는 현정권의 수반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일본을 공식방문하는 데 반대한다. ③ 현행 노동관계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며 망국적인 외국농산물 수입기도는 저지되어야 한다. ④ 현정권은 권력형 부정부패와 경찰폭력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사무실 개소를 축하하는 모임이 끝난 뒤에 상임대표위원인 김승훈신부, 김동완목사, 이부영선생이 간판을 달았고, 간략한 다과회가 있었다.

### 부평 노동자들의 문화잔치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주최)

8월 15일 부평 1동 성당에서는 노동자 문화잔치가 열렸다. 이날 잔치는 오후 4시에 시작되어 성당 유아원에서 진행되었다. 길놀이와 고사에 이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이 시·노래·낭독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입구에서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서명도 받고 있었고 또 한쪽 옆에서는 떡과 막걸리·안주 등 간단한 음식도 팔아 오랜만에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공장일을 끝내고 올 수 있었던 저녁 7시 무렵부터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다. 풍물패의 힘찬 장단, 노래·만담·춤 등이 어우러진 장기자랑에 이르러서는 그 흥이 절정에 달했다. 연극은 어용노조를 분쇄하고 노동자의 진정한 단결기관인 노동조합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었는데, 처음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방식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잘 보여주었다. 연극이 끝난 뒤에는 성당마당으로 나와 풍물에 맞추어서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생활에서 맺힌 한을 풀었다.

### 왜색가요는 몰알로

—제2회 '민요의 날' 행사

오늘날의 척박한 문화현실 속에서도 우리 민중의 삶이 숨쉬는 정서와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민요와 함께 호흡하는 제2회 '민요의 날' 행사가 지난 8월 29일 동송동의 흥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민요연구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우리의 노래이며 민중자신의 노래인 민요를 통해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진한 몸부림이었다.

이날의 모임은 전북 익산지방의 민요인 「비타령」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신선한 노래 말과 흥겨운 굿거리장단은 참석자 모두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이어서 신경림의 시를 노래화한 「목계장터」를 배우고, 김정환시인의 작품낭송이 있는 뒤에 「왜색가요와 민족정서」에 관한 성내운교수의 주제강연이 있었다. 민중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훈훈한 정서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에 한껏 젖어있던 참가자들은 성내운교수의 뛰어난 호소력과 날카로운 비판에 더 큰 감동을 느꼈다.

또한 하종오시인의 작품인 「소리굿」의 공연은 제1회 민요의 날 행사때의 고사판사에서 보여주었던 면모를 다시 한번 유감없이 드러냈다.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감각, 독특하고 새로운 양식의 도전, 시와 민요의 만남 등등이 놀라운 창조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강렬한 생동감을 부여했다. 굳이 흠을 잡는다면 소리굿의 공연 전체에 있어서 감수성과 감각적 측면에서 볼 때 노래들의 연결이 다소 단절적이었다는 것 정도이다.

### 김병걸선생 회갑연 및 출판기념회

민족문학의 정착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남달리 의로운 길을 걸어온 김병걸선생의 회갑을 기리는 잔치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에 걸쳐 흥사단 강당에서 2백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선생의 평론집 『실천시대의 문학』(실천문학사 간행)의 출간을 맞아 출판기념회를 겸하여 열린 이날 모임은 소설가 이문구선생의 사회로 축사와 담사를 겸한 제1부와 간단한 축하잔치인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참석한 손님에게 김선생의 평론집과 특별히 이날을 위하여 준비한 회갑기념문집(김규동, 고은, 신경

림선생의 축사, 문익환, 성내운, 백기완, 백낙청, 박태순선생의 찬사가 수록되어 있다)을 증정한 후 시작된 회갑연은 김규동선생의 축시낭송에 이어 문익환·성내운선생의 축사, 청년을 대표해 김근태씨의 헌사, 김정환시인의 축가순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김선생의 회갑을 맞이한 선생 심경을 밝혔다.

자유로운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해직교수로의 복직조차 거부한 선생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앞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열을 불태우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 장준하선생 제9주기 추도식

—묘소에 민주인사 2백여명 참석—

민족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제9주기 추도식이 지난 8월 17일 낮12시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천주교 묘지의 묘소에서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되었다.

이날 추도식은 계훈제 선생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대회장 문익환 목사는 추도사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묘소를 참배하는 조문객이 늘어감을 보니 이제 고인이 잠든 이곳은 민족의 성역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학평론가 김병걸선생은 일본 재침략 문제에 대한 간단한 강연으로 조사를 대신했으며 민청연 의장 김근태씨는 고인의 민족통일운동에서의 사심없는 몸가짐을 뒤따르겠다는 의지의 헌사를 올렸다. 이어 김정환시인의 조시 「오월곡」이 낭송되었다. 추도식은 6·10만세사건의 생존자인 박용규 선생의 만세삼창과 참배객들의 헌화로 끝났다.

### '참 민족해방을 위한 거리굿'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청년연합 공동주최, 민중민주운동협의회 후원)

'참 민족해방을 위한 거리굿'은 외부적 제약 때문에 거리가 아닌 주택가 입구에 위치한 흥제동 성당 마당에서 벌어졌다.

먼저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선배투사 영령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었고 민족통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승리를 기리는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다. 이어서 마당 전면에 설치된 가설무대에 일한사절단이 등장하여, 일본인들은 신군국주의에 대해서는 오리발을 내밀며 교묘하게 일한협력을 강조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일본돈을 구걸하는 한국관

리가 일본기수가 부르는 '돌아와요 부산항에'에 맞춰 흔들려 대는데 그 사이마다 관객들은 끊임없이 '물러가라' 등의 욕을 해대었다. 이때 맞은편에서 학생, 시민, 관객들이 내뿜어 일어서서 차례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 신식민주의적 경제침탈, 굴욕적 한일 문화교류, 현정권의 매국적 방일의도, 친일세력들의 부정부패 등의 진상을 폭로하고 규탄하면서 관중 10여명과 스크럼을 짜고 마당을 돌았다. 조금 후에 농민, 노동자, 독립운동가 등이 함께 싸우는 모습이 그려진 영정과 함께 깃상이 마당에 들며 민중계관이 등장하여 초혼굿마당을 벌이기 시작했다. 계관이 잡귀귀신 오적귀신을 몰아내고 민족해방 영령들을 불러내는 사실 후에 열사들의 혼을 받아 춤추다가 쓰러지자 '봉기가'를 부르며 영령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열사마당이 벌어졌다. 농민의병의 영령, 청년지사의 영령, 강제징용자의 영령, 한일협정 때 반대시위를 하다가 죽어간 학생의 영령 등이 한 맺힌 독백과 노래 끝에 쓰러지는데, 분을 참지 못한 노동자 열사가 깨어 일어나 구호를 외치고 이들 모두를 규합하여 '전진하는 새벽'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등의 노래를 부르며 퇴장했다.

이어서 벌어진 도둑쟁이마당에서는 재벌, 관료, 군바리, 언론, 대중문화로 이루어진 오적이 등장, 한바탕 자기자랑을 늘어놓다가 말뚝이가 일본유람단을 모집한다며 이들을 모아서 재판마당을 벌이기 시작했다. 오적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때로는 빌고 때로는 갑자기 일어서서 잘난체하다가 말뚝이와 관객들로부터 야유와 욕설을 들었다.

재판마당이 끝난 후 처형식이 있었다. 이 마당에서는 국내의 매관세력인 오적들은 물론이고 이들과 결탁한 외세의 무리들이 관객들의 구호와 합창 속에서 처형되었다.

「참 민족해방을 위한 거리굿」은 상황적 제약 때문에 뒷풀이도 없이 끝났지만, 60년대 중반 이른바 '한일국교정상화'라는 치욕적 매관외교의 문제를 놓고 당시의 대학생들이 격렬하게 벌인 굿관이었던 '향토의식 초혼굿'의 맥을 잇는 것이며, 정치의 침예한 표현이 문화이며 정치운동의 강력한 실천방법이 문화운동의 실천방법과 결합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본보기라고 하겠다.

## 책 소개

### 「죽음의 문화」

광주 「일과 놀이」의 작은책 시리즈 두번째 단행본.

19세기 중반 한 인디언추장이 문명세계(미국)에 보낸 공개장을 비롯, 민족문학론의 시각에서 미국을 생각한 백낙청 교수의 「한국에 있어서 미국의 의미」(홍남순 변호사 회갑기념논문집)에서 재수록, 레오 보가트의 「미국의 매스 미디어」, 라디오극 대본 「미 TV산업계 관광」, 필립 슬레이터 「움직이는 것은 다 죽여라」, 엘리후 캣츠·조오지 웨델의 공동논문 「제3세계 방송매체와 개발자제 및 전망」 실려있다. 권말에는 금년 초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백남준 전위예술의 반동성에 대한 좌담 「심야에 찾아든 문화적 폭력」이 수록되어 있는데 홍선웅·육환·홍성담·정이담·최열씨가 좌담에 참석하였다. (「일과놀이」 간행, 173면, 값 1,700원)

### 「민중현실과 민족운동」—「현장」1집

위태로운 민족사의 한 모퉁이, 자기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참다운 인간으로 변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민중의 절박한 삶의 현장에 서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된 글모음. 창간 특집으로 「민중생활의 현주소」란 제목 아래 그 동안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으면서도 그 성장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나누어 가진 바가 없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생활 체험담을 실었다. 또한 좌담 「민중현실과 민족운동의 과제」에서는 사회적 생활방식이 다른 6명의 대담자가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그 처지가 고통스럽고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뜯어 고쳐나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념적 차원의 논의를 떠나 구체적인 입장에서 토론하고 있다.

(둘베개, 크라운판 424면, 값 3,500원)

### 「해방후 학생운동사」

일제식민지하에서부터 민중·민족·민주의 이념 아래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지속되어 온 학생운동은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조직운동에 필요한 자기 기록을 갖지 못했다. 교회 청년단체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한 pamphlet 정도가 학생운동을 단지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번에 간행된 「해방후 학생운동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저자는 6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으로서 지금도 민족·민주운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운동사의 정리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이 역작을 썼다.

(형성사, 이재오 지음, 크라운판 437면, 값 4,500원)

### 「조합결성의 기초지식」

노동조합을 만드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안내서.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섯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모두가 조합을 원하고 있다」(제1장), 「소그룹으로부터 조합결성까지」(제2장), 「결성대회는 어떻게 하나」(제3장), 「회사의 부당한 공격에 관하여」(제4장), 「결성으로부터 요구실현까지」(제5장) 조합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풀이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규약 전본」과 「단체협약 전본」을 곁들이고 있다.

(동녘, 118면, 값 1,200원)

## 새노래 소개

### 이山河에



1. 기 나 긴 밤이엿거든 입제의 밤이엿거든 -
2. 기 나 긴 밤이엿거든 죽음의 밤이엿거든 저
3. 기 나 긴 밤이엿거든 투쟁의 밤이엿거든 북



- 우금치 마루에 흐-르-던 소리없는 통곡 이어 든 불  
삼-월 하늘에 줄렁-이던 피어물든 깃발 이어 든 목  
만-주 벌판에 울-리-던 거역의 밤이엿거든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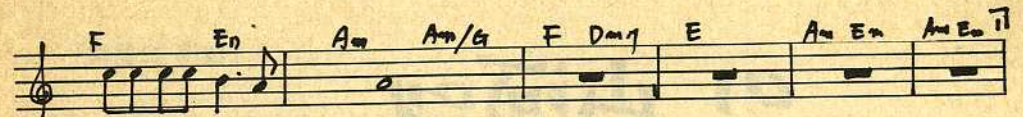


- 타는 녹-두- 벌판에 새벽 빛...이 흔들린다 해-도 굵이  
매인 그함-성- 소-리 근교 히...이 어둡같이 잠들고 바람  
아 아문-전- 세-월 단진 눈보라가 몰아친다 해-도 불-



- 치는 저-강물 위 에 아침 햇살 춤춘다해 도 나는  
부는 문-지- 위엔 취함  
은-이-산-하에 이함

# 새노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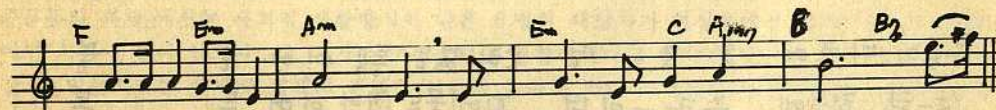
남부시지않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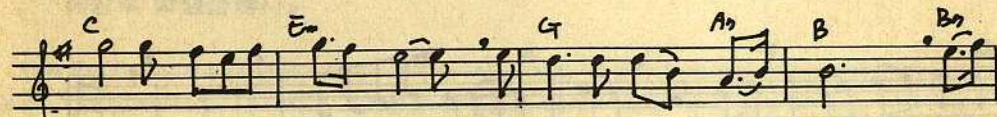
깃발만 나부껴 나는 노여워우노라



목숨물린다해도 나는 쓰러지지않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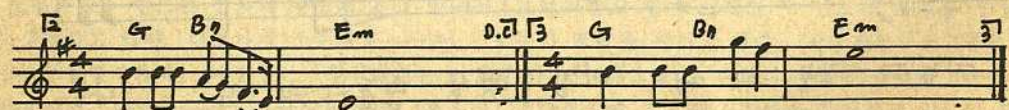
(후렴) 폭정의 폭정의 세월 참혹한 세월 에 살-



아 - 이한몸 써어지 - 이 북은 산하 - 에 살-



아 - 래방의 래방아래 - 벌거



승이이산-하-에 승이이산하-에

# 새노래 소개

## 가자 가자



1. 총칼에 찢기운 가슴속에
2. 억압의 발길에 쓰러져도
3. 외롭고 지루한 싸움속에



남몰래 흐르는 저 신음소리  
 이대론 못죽는다 일어서자  
 자유라 명등명화 찾-으러



(후렴) 또 거문피 형제들아



모두 일어서서 가자 가자 가자

# 참 민족해방을 위한 거리굿

이 대본은 8월 29일 홍제동성당에서 민중문화운동협의회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주최한 거리굿의 뼈대를 정리한 것이다.

## 참 민족 해방을 위한 거리굿을 주최하며

문화는 그림의 떡일 수는 없다.

문화는 민중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는 자각된 민중에 의해 각 투쟁의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쓰여지면서 민중들의 투쟁 정서를 유형화하여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불가사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화는 가난과 소외로 일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시각에 눈 뜨게끔 하여 가난과 소외의 근본원인을 함께 찾아내고 그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매판, 파쇼, 외세와의 줄기찬 싸움에서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지고한 동지애를 통하여 진정한 인간해방의 길을 찾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일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급급하여 획책하고 있는 한반도의 재분할 정책과 이에 편승하여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일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전두환정권의 매국적 행동을 그대로 묵과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다시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일, 매국, 매판 세력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참 민족 해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거리굿을 하려고 한다.

거리굿이란 사회 전체에 급작스러운 재앙, 예를 들면 피질 또는 전쟁 화마 등이 덮쳐올 때 재앙을 일으키는 제 악귀를 물리치고 사회를 구해내기 위한 일종의 집단 주술의식으로 사회 구성원 전원이 배우가 되고 사회 전체가 무대가 된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현 상태를 매국, 매판 귀신이 악독한 외래 군국주의 귀신의 사주를 받아 한반도를 핵전쟁지화하려는 화급사태로 규정짓고 이들 악귀를 퇴치하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 민중들의 힘을 규합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참 민족 해방을 위한 친일, 매국, 매판 세력 척결의 거리굿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800만 노동자여!

1,000만 농민이여!

학생 청년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제재침 저지대열에 총집결하자!

민족통일 만세!

민주주의 만세!

민주화운동승리 만세!

1984년 8월 29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중문화운동협의회

## 1. 시작의식

치욕적인 경술국치일 00시를 기해 민중들은 투쟁 단위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선배투사 영령님들께 조출한 제사(목념)을 드린다.

## 2. 앞풀이

제사를 끝낸 각 패는 미리 준비한 깃발을 앞세우고 밥그릇, 풍물(밥그릇, 숫갈, 냄비 등을 사용)을 치며 독립군가, 해방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거리로 뛰어 나와서, 만세를 부른다.

민중방송국은 다음과 같은 안내방송을 해도 좋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까이 일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일제의 사슬로부터 해방된 지 39년이 되었지만 민족의 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1963년 한일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한반도는 일본에 의해 좀 먹히기 시작하여 민족경제는 일본제국주의 경제에 종속되었습니다.

9월초로 예정된 전두환의 일본방문은 매판적 군사정권의 존속을 보장받은 댓가로 한일 군사동맹과 일본문화의 한반도 침탈을 공식화시키는 제 2의 한일합병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합방이 조인된 치욕적인 경술국치 74주 기일인 금일 00시를 기하여 참 민족 해방을 위해 매판, 파쇼, 외세를 타도하는 거리굿을 전국적, 범국민적으로 동시에 행하려 하니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적당히 사람들이 모이면 각각의 민중풍물패는 참 민족 해방을 기원하는 깃발을 앞세우고 전한반도로 흩어져 일제 잔재를 소탕하기 위한 지역별 지진밟기를 시작한다.

지신밟기 끝에 일한사절단이 따라들어온다.

일한사절단

구소구라에, 막료장, 한판리, 가수 2명등이 깃발을 앞세우고 들어온다.  
“돌아왔네 부산항에”를 일본말로 합창한다.

구소구라에 : 와다구시와 조선을 매우 사랑하므니다. 와다구시노 사상이노 일한친선사상, 마, 쉽게 말해서 기생포식, 처녀시식, 유부녀간식, 오물배설, 자원약탈, 보물도굴, 폐품처리, 공해수출, 시장확보, 일확천금, 과거설욕, 노력수탈. 마, 한마디로 말해서 내선일체 사상이므니다. (이상을 가수 2인이 따라한다)

와다구시는 간쑤꾸는 공산주의에 대한 니쁜의 방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니다. 이 방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니쁜국은 얼마 안되는 국방비 부담으로 충분했고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으므니다. 일한 정상화를 서둘러 간쑤꾸는 경제의 재건에 일본이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므니다.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한일간의 무역 적자가 280억불에 달한다고 우리 니쁜국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므니다.

간쑤꾸는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1호선 판매시에도 소위 리베이트도 쪼로 간쑤꾸는 고위층에게 7억 5천만엔을 바쳤으므니다.

아마도 지난 20년 동안 280억불에 절반쯤은 간쑤꾸는 고위층에게 정치자금 내지는 뇌물로 바쳐졌을 것이므니다.

물론 그동안 와다구시와 니쁜국도 약간의 이익을 봤읍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으므로, 마,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을 정확하게 하자면 니쁜의 첨단 과학 기술을 간쑤꾸에 이전해 달라는 여러분의 주장은 억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 우리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와다구시와 한국에 오면 기분이노 매우 상쾌하므니다. 와다구시와 일본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한국에 오므니다.

한판리 : 아 정말 잘 오셨읍니다. 저 역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일본에 가끔 들르고 싶지만 일본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 공연한 뒷소리들이 많아 가지고 가고 싶어도 문갈 때가 많읍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각하가 일본을 방문하시게 되었으니 이제 일한 관계도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협력의 신시대를 여는 만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전기를 맞이했읍니다. 아무쪼록 한푼 주실 것을 두푼 주시고 한번 주실 것을 두번으로. 정부차원 민간차원 가림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마, 엄청나게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막료장 :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정, 즉 현상태의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일본이 다음 세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의 주역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불편한 관계였던 한국과의 관계를 다듬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대 일본제국 육·해·공 지위대의 통합막료장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한국민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읍니다. 예, 우리 니쁜제국·부활하는 니쁜제국은 간쑤꾸에 대한 도의적·양심적·박애적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영구토록 간쑤꾸를 도와 동아시아노 방위를 담당이노 하겠읍니다. 아, 아니무이다. 아니무이다. 이전 절대로 아시아를 다시 지배노 하자는 것이 아니무이

다. 참, 진짜, 정말로 아시아를 지배할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읍니다. 감사하무니다. 감사하무니다.

(가수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른다)

구소 : 참으로 감격스럽으므니다. (반복) 간쑤꾸는 국민이가 우리 니뿐이노 오까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럽으므니다. 이것이야말로 일한친선 내선일체 사상의 물적 기반이 될 것이므니다. 아 와다구시가 간쑤꾸니 올 때마다 간쑤꾸는 돈가진 사람들이,

투자투자투자투자 니뿐은 어머니 간쑤꾸는 아들.

이러케무니 와다구시노 훈도시 자락을 붙잡고 니뿐이노 오까베를 기다리고 있으므니다.

한판리 : 협력협력협력

일본은 오야붕, 한국은 쑤붕

오야붕이 뒷배 선듯 협력 좀 하쇼

안보안보안보안보

일본은 옛 상전, 한국은 부하

상전이 지휘하듯 안보 좀 해주쇼

미군이 물러갈 때 미군대신 한국 안보

일본에게 의지토록 자위대 타위대 강화하고

미쓰비씨·미쯔이공업을 군수업으로 강력 전환

한국과 군사동맹 내선일체로 하여주오

내 위치만 변함없이 지켜주기만 한다며는

오오 센세이! 위대한 국민이여!

안보안보안보안보

.....

막료장 : 간쑤꾸니 안보에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길.

일한 운명공동체. 동일작전지역. 4해협봉쇄.

그러나 막강한 자위대의 위력을 직접 나타내 보이기 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웃으며 어깨동무하고 같이 노래하며 문화적으로 동화해가는 방법.

(양측 가수들과 어울려 노래한다)

지신밟기를 하는 방법은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곳(예를 들면 일본인 상사, 일본 대사관, 친일분자의 집등)을 차례로 돌며 일본군국주의의 부활, 신식민지적 경제침탈, 굴욕적 한일문화교류, 전정권의 매국적 방일의도, 친일세력들의 부정부패 등의 진상을 폭로하고 규탄하면서 개별화되어 있는 민중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한다 (가두연설을 벌이기도 한다).

지신밟기를 하면서 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듯 참 민족 해방을 위한 굿거리판으로 집결하기 위한 대행진을 한다.

3. 본풀이

1) 초흔굿마당 : 잡귀잡신을 쫓아내고 조상영령을 모셔들이는 곳으로 잡귀잡신을 쫓는 부정거리, 영령을 불러들이는 청원거리, 영령들의 조언을 구하는 공수거리, 함께 노는 뒷전거리로 이루어진다.



굿판에 촛불과 정한수와 향불 정도가 준비된 조촐한 상이 준비되면 민중제관이 굿거리춤을 추며 등장하여 굿판을 정리 한 후 사방제신께 배례를 한다. 이어 다시 굿거리 춤을 추며 “광복군 석탄가”를 부른다. 노래가 끝날 때쯤 사방에 술을 뿌리면서 매관 매국 오적과 외세 군국주의 귀신을 쫓아내고 민족, 민중열사 귀신을 청한다.

사설 : 휘이 잡귀잡신 오적신은 물러가라(술을 뿌린다)

금으로 옷 해입고 금으로 모자 해쓰고 금으로 구두 해신고 금으로

장갑 해끼고 금으로 마누라 만들어 금방석에 앉히고

세금 끌겨 외국돈 끌겨 사채돈 끌겨 모조리 끊어다가 끌겨 끌겨

집어 삼키고 돈 독이 오른건지 똥독이 오른건지 통통 부어죽은

재벌귀신 물러가라

허 어디서 선거공약 선거화약 냄새가 나는구나

오 그래 그래 골프채 높이들고 부정부패 쫓아 다니는 배불뚝이

국회의원 귀신이로구나

네 이놈 여기는 네 놈이 있을 곳이 아니다.

저기 저 문 밖으로 옛다 나가거라 이놈아

아니 이진 또 웬 놈이나

지금 세상이 어느 때라고 네 놈이 뽀다구를 잡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냐 네 놈이 있을 곳은 예가 아니다. 황천지옥 열라대왕

앞이나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쪽바리를 등에 얹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를 불러대다니 네 이놈

씩 물러가지 않으면 네 놈을 갈가리 찢어죽이리라

물러가라 휘어이

저기 저게 뭐냐 무엇이 꾸역 꾸역 물려있는 게냐

더러운 군바리놈들 아니냐

이 땅에 피를 뿌리고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기를 업으로 삼던 놈들

무엇이 부족하여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단 말이냐

뼈빠지게 일해서 네 놈들 뒷바라지 하기에 몸둥이가 가루가 된 저 백골들이

무섭지도 않느냐 죽썰어 개바라지 한 것이 못내 억울하여 여기 눈 못 감고

떠도는 민족해방 영령들이 나오시니라 물러가라

조국을 지키시다 개만도 못한 놈들 손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족 해방

영령들이시여 어서 읊서

민중의 살이시여 민족의 혼이시여 어서 어서 읊서

그대들이 아니면 누가 저희 눈에 박힌 가시를 내어주며

누가 저희 등창에 박힌 고름을 내어줍니까?

어서 오셔서 우리 백성들 골수에 맺힌 한을 풀어 주소서

사설이 끝나면 열사들의 혼을 받아 그들의 생을 상징하는 춤을 추다 쓰러진다. 다시 천천히 일어나며 봉기가를 온몸으로 부른다.

## 2) 열사마당

◎ 무당이 쓰러졌다 신을 받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봉기가’를 부른다.

1절이 끝나고 2절이 시작될 때 한일합방 후 일제의 수탈에 의해 농토를 빼앗긴 후 고향산천을 떠나 민족 해방투쟁을 벌이다 죽은 농민의병 영령이 봉기가 2절을 부르며 등장한다. 다같이 3절을 부르는 동안 농민의병 영령은 왜놈 도살춤을 추면서 의병투쟁활동을 암시한다. ‘봉기가’가 끝나고 잼이가 나즈막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부르며 농민의병 영령이 관중석에서 독백을 시작한다.

왜놈?

별것 아니여.

조선사람 피먹고 사는 사꾸라들이여.

밥그릇, 호미, 쟁기로 일본도 만들어 기껏 할복자살이나 하는 섬놈들이란 말이여.

조선백성 흰 옷자락에 피묻히고

조선처녀 이리 저리 잡아다가 군대 위안부로 쓰는

흡혈귀, 순 잡놈들이여.

그러나 가야지

눈물덩이, 한숨덩이, 짓밟힌 심장, 꺾인 허리, 부러진 다리, 풀어 헤쳐진 가슴

다 떨치고 일어서야지. (이 때 잼이는 ‘신농민가’를 나죽이 부르기 시작한다)

합성소리, 만세소리, 창칼 부딪히는 소리, 핏줄 거꾸로 솟는 소리, 흙이 용트림하는 소리, 말 달리는 소리...그 속으로 가야지.

하늘도 꺼지고 땅도 우는 저 능선을 굳세게 벽찬 마음으로

가야지

왜놈들

케다짝 벗어들고 엎어지고, 깨지고

죽어라고 빌어도

끝까지 쫓아가야지

매맞아 으깨어진 몸으로도

피끓는 심장으로, 부릅뜬 눈으로

부딪혀 가야지

차라리 들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꽃으로

피어나야지(이때 잼이는 나죽이 ‘신독립군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죽이리라

우리민족 2천만을 멸망시킨

왜놈들 5천만을

오늘부터

하나 들썩 보란대로

갈기 갈기 찢어 죽이리라.

씨를 말리리라

장백산 태백산

한 걸음에 내달려  
현해탄 건너가  
한 놈도 남김없이  
말려 죽이리라.

독백이 끝나면 '신독립군가'를 부르며 독립군의 생애를 춤으로 추다 쓰러진다.

◎ 해방후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통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혼신을 다하다가 미군정의 비호아래 친일파가 재집권하자 이에 항거하다 맞아죽은 청년지사 영령이 “쏘련놈에 속지말고, 미국놈 믿지마라, 일본놈이 일어서니 조선사람 조심해라 !”는 당시 민요를 흥얼거리며 등장한다. 친일세력의 재등장을 한탄하는 사설을 한 후 '새야 새야'를 부르면서 천천히 걸어간다.

누이야, 어디 있니?  
꽃보다 이쁜 우리 누이,  
왜놈들 질질 끌어가  
만주로 저 먼 남지나로  
왜놈들 좇지랄에 피흘리게 하더니  
누이야, 꽃보다 이쁜 우리 누이야,  
지금은 어디에 누워 있니?  
어떤 빛깔로 누워 있니?  
누이야, 누이야, 네가 내 누이니? 아니야. 누이야.....  
(찾으러 다닌다)  
누이야, 지금은 꼭꼭 숨었다가  
진짜 해방되거든 오너라.  
해방됐다고 하길래  
서대문 청무소서 뛰쳐나와  
만세를 불렀더니  
대한민국만세! 만세를 불렀더니  
누이야, 이쁜 우리 누이야,  
이것이 웬말이나  
네 동생이 양갈보로 되었구나.  
이것이 웬말이나  
왜정때 모진 고문 가하던 째새가  
이젠 독립됐다는 대한민국의 째새가 되어  
나를 매달아 죽이는구나.  
누이야, 지금은 꼭꼭 숨었다가  
진짜 해방되거든 오너라.  
너를 묶어 정신대로 보내던 놈들이  
이제는 관리가 되어  
배때지 내밀고 다니는구나

누이야, 누이야  
꽃보다 이쁜 우리 누이야  
진실로 이 땅이 해방되거든  
양키놈 쪽바리놈 물러가거든  
누이야, 오너라  
이 기쁜 땅에서  
나와 함께 어울어지자꾸나.

◎ 일제의 강제징용에 끌려갔다 강제노동에 시달린 후 조국해방을 맞이하여 고국땅에 돌아오려 했으나 여비가 없어 혼이라도 돌아가겠다고 목숨을 끊은 강제징용자의 영령이 등장하여 잼이의 '새야 새야' 콧노래가 한소절이 끝난 뒤 독백을 시작한다.

논밭강산 다 뺏기고 부모자식 남겨둔 채  
바다 건너 왜놈땅에 강제징용 끌려와서  
갖은 학대 탄압 속에 햇빛구경 못해보고  
강제노동 시달리다 남은 것은 병든 육신  
자나깨나 기다리던 조국해방 맞았건만  
고향땅에 가자하니 멍전한뎡 천게 없네

독백이 끝난 후 구절을 하러 돌아다니다 일본놈의 발길에 쓰러진다.  
쓰러진 후 '두어라 가자' (개사)를 부르며 일어난 후 잼이의 '새야 새야' 콧노래에 맞춰 바로 독백을 시작한다.

지옥같은 왜놈땅엔 단하루도 못살겠다.  
구절하며 배채워서 걸어라도 가자꾸나  
현해탄이 가로막아 발로걸어 못건너면  
헤엄치다 빠져죽어 시체라도 가야겠다.  
어쩔거나 어쩔거나 이내신세 어쩔거나  
산뎡으로 못간다면 죽어라도 가야겠네

독백이 끝난 후 지살을 하며 쓰러진다.

'두어라 가자' (개사한 것)  
두어라 가자 몸쓸 왜놈땅 설운거리며 두어라 가자  
채찍에 맞아 뼈만 남은 몸 고향땅은 아련하게 멀은 데  
강제징용살이 하세월도 길어라 몸은 병들어 갈갈이 찢겼네  
고향집 싸림문 부모님 처자식 이제 내가면 반겨줄랑가

◎ 일제를 이땅에 다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 치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군사독재정권의 몽둥이에 쓰러져간 학생영령이 '한·일협정반대' 선언문을 관중석에 뿌리며 관중 가운데 한 사람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뛰어 나온다.(이 때 플랭카드를 앞세운다)

판에 들어서면 곧장 구호를 몇개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 이어 '탄아 탄아 최루탄아'의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가 끝나면 성명서를 낭독한다.(이 때 관중은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성명서 낭독소리가 노래에 파묻히고 노래가 끝이 날 즈음 다시 구호를 외치며 선동한다. 이어 관객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무대를 돌며 노동자의 합세가 있을 때 경찰의 곤봉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 \* 구호내용 - 한일협정 결사반대한다.
- 대일본 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하라.
- 매국외교 중단하라.
- 매관세력을 척살하라.
-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 한일회담을 중지하고 전정권은 퇴진하라.

◎ 학생의 명령이 매국적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무참히 쓰러진 후 '님을 위한 행진곡'이 처절히 울려 퍼진다. 이에 일본투자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다 일본인에게 맞아 죽은 노동자 열사가 분을 참지 못하고 깨어 일어나 흠어져 있던 세력을 규합하여 선봉에 선다.

이 때 전투경찰이 나타나 공순이 주제에 어디서 떠드느냐고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 이를 뿌리치며 다음의 대사를 한다.

나라 나라 이 놈의 손모가지가 누구거나  
 나라 나라 씨판  
 그래 니네들 말마따나 내가 공순이다.  
 한국, 속의 일본땅, 마산수출 자유지역에서 노동자들 땀땀을 빨아먹는  
 쪽발이에 항거하다 매관경찰에게 짓밟혀 죽은 노동자다.  
 죽었으면 그대로 자빠져 있지, 왜 이곳까지 와서 설쳐대냐고,  
 지랄들인가 본데 쪽발이 손에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 위령제 있어서 나도 한바탕 놀아보려고 왔다.  
 그런데 죽기 전에도 공순이라고 갖은 팔세 다하더니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개수작이나 통째로 쪽바리가 한반도를 삼키려는 이 마당에 그놈한테 죽은 내가 그대로 있으란 말이나

대사가 끝나자마자 이어 구호를 외친다.

구호 쪽바리 물러가라.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자를 팔아먹는 매관정권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지목하라!

구호가 끝나면 자신과 함께 죽어간 수많은 동지들의 영혼을 모아 '노동해방가'를 힘차게 부른다. 이어서 노동자의 영혼을 불러 모음과 동시에 같이 누워있던 명령들을 깨우며 새벽이 밝아옴을 시사하는 '진진하는 새벽'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를 모든 민중과 함께 큰 소리로 부르며 열사마당을 끝낸다.

### 3) 도둑쟁이 마당

말뚝이 : 우리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있을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도둑놈들 다섯을 잡아다가 내리 족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이제부터 오적을 잡으러 갈 것이니 신발끈 꼭 잡아 매고, 허리춤 바짝 추켜 올리고 대기 하렷다.

(불림) 오적을 잡으러 나가세(춤 추러 나갔다가 한방 얻어 맞고 쫓겨 들어온다)  
 어쿠쿠쿠쿠..... 거 오적을 찾기는 찾았는데 노는 꼴상들을 처억 훑쳐보니 어이구우.....  
 보통 놈들이 아니더라. 우리가 그 놈들을 잡으려하는 요 머리를 굴려야 쓰겠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오적놈들이 외제라면 꿈쩍못하는 놈들이니 일본 보내준다고 꼬셔서 잡아오세 -  
 꼬셔서 잡아온다네 - (퇴장)

(이때, 오적이 춤을 추며 등장한다.)

재벌 : 도돈 도돈 돈도도돈

관료 : 으썩 으썩 으쓰스썩

군بار리 : 빠방 빠방 빵바바방

언론 : 왜곡 왜곡 왜고고곡

대중문화 : 최면 최면 최최면면

함께 : 오적들 세상이라네.

재벌 : 으호호호호

재벌 } 에헤헤헤헤

관료 }

군부 } : 으호호 짹짹

재벌 }

관료 }

재벌 : 도돈 도돈 돈도도돈 으득으득 으드드득

즐겁고 즐겁고 또한 즐겁다.

관료

군바리

언론

대중문화

(따라서) 즐겁고 즐겁고 또한 즐겁다.

재벌 : 청구권 자금도 즐겁고 안보경협도 즐겁다.

공해산업도 즐겁고 폐품처리도 더욱 즐겁다.

농사꾼 죽는다 악씨도 쌀값 낮으니 즐겁고

노동자 아무리 일해도 월급 낮으니 또한 즐겁다.

오적 : 도돈도돈 돈도도돈 어허 얼썩 살판이야 오적들 세상이라네

관료 : 으쓱 으쓱 으쓰스속 우둑우둑 우두두둑  
신나고 신나고 또한 신난다.

재벌 }  
군벌 } : (따라서) 으쓱 으쓱 으쓰스속 우둑우둑 우두두둑  
언론 } 신나고 신나고 또한 신난다.  
대중문화 }

관료 : 외채가 많아서 신나고 수출은 드물어 신난다.  
외채건 내채건 쓸 때마다 커미션 뜯어서 신나고  
강남강북 가림없이 부동산 투기해 신난다.  
각하가 방일해 신나고 일본돈 또 들어와 더욱 신난다.

오적 : 으쓱으쓱 으쓰스속 에헤얼쑤 살판이야 오적들 세상이라네  
군바리 : 빵방 빵방 빵빵바방  
쿠궁쿠궁 쿵쿠구궁  
기쁘고 기쁘고 또한 기쁘다.

재벌 }  
관료 } : (따라서) 빵방빵방 빵바바방 쿠궁쿠궁 쿵쿠구궁  
언론 } 기쁘고 기쁘고 또한 기쁘다.  
대중문화 }

군벌 : 졸개가 많아서 기쁘고 총대를 잡아서 기쁘다.  
우리 댕방 대통령 되어서 더욱 기쁘다.  
미국의 핵보장에 이어 일본까지  
안보분담, 군사동맹, 무기제공. 이 아니 기쁘고 기쁘냐.

재벌 :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관놈은 노랗게 굵고 차관놈은 벌겍게 삶아 요리조리 손가락  
끝에 가지고 노는 분이시지.  
내 돈 먹은 관리놈들 똥줄타고 밥줄타서 일본돈 들여다 나한테 주니 이 노릇 천년 만년이  
라도 하고지고. 일본돈 들여다가 공장부지 매입한다고 열령똥똥 설레방 쳐놓고 부동산 투  
기, 세금포탈, 용지 변경 식은 죽 먹기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지 않겠느냐?  
미국은행 스위스은행 세계만방에 꼬부쳐 돈 돈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고, 88년 쌍팔년  
올림픽, 내림픽, 일본하고 손 잡고 장사해 먹을 생각을 하니 으호호호, 어찌나 좋은지 자다  
가도 너털웃음이 꺾꺾꺾꺾, 잠을 못이루겠구나.

관료 :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 비록 생긴 것은 요모양 요꼴이래도 아래것들 들볶고 내 뺏  
속 채우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지. 없는 놈들 죽진살진 똥창까지 득득 긁어다  
가 스리슬쩍 이 뺏속에다 꾸역꾸역 쑤셔넣고 오른손은 주물럭 주물럭 제집 젓통위에다가  
한·일경제협력, 일·한 문화교류라 짹짹 쓰노라니 허허 이너언 호호 간지럽사와요.  
이런 무식한 년 국사가 간지러워?  
찌진 북소리 깨진 나팔소리 뽀뽀뽀뽀 불어대며 내 배는 내가 채워야지.  
검정세단, 밴쯔에다 몰스로이스까지 다 사놓고 청렴결백 시위코자 pony만 타는 나야.

예산에서 몽땅먹고 입찰에서 왕창먹고 행여나 냄새날라 질근질근 껌씹으며 켄트를 피워물  
고 외래품·철저단속 공문을 획획획 갈겨쓰니 어허 이만하면 달필이 아니라.  
굶더라도 수출이다. 곧 죽어도 차관이다. 아사한 놈 뺨다귀로 현해탄에 다리놓아 가미사  
마 배알하랴.

군벌 : 본관으로 말하자면,  
내 졸개가 만리장성이고, 그 졸개들 또한 먹고 살기가 남 부럽지 않으니 어디 한번 들어  
보거라.  
대위로 제대한 놈은 예비군 중대장에 서기관 시켜주고 대령으로 제대한 놈은 국영기업체  
사장 별달고 예편한 놈은 국회의원에 썩썩 나서게 해 주니 이만하면 내 권세가 어떠냐  
금, 은, 백동 천근만근 훈장이 보시다시피 이리하고 얼어죽는 쫄병들은 일만하면 땀이 난  
다. 온종일 사역시키고 부속차량 피복연탄 부식에 봉급·위문품까지 떼어먹고 힘들어탈영  
한 놈 군기잡자 영창에 집어넣고 말많은 대학생놈들은 강제징집 녹화사업 벌리고 그래도  
까부는 놈은 빵방.  
열중쉬엇 차렷. 열중차렷 열차열차 열차차차 열차차 열차열차 열차차.  
그 중에도 기쁘고 기쁘고 또한 기쁜 것이 있으니 버릇없는 것들 한 2만명만 질러죽이면  
나도 88년에 한번 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빵방 빵방 빵빵바방 에헤얼쑤 살판이야 군바리세상이로구나.

이어서 대중문화와 언론은 퇴폐적인 노래와 몸짓으로 분위기를 흐린다.  
마지막으로 오적들은 일본군가를 합창한다.

말뚝이 : 네 이놈들 게 샐거라-가 아니라 일본 유람단 모집이요.  
(5 적들 늦을세라 달려와서 줄을 선다)  
말뚝이 : 앞으로의 갓!

원귀들 앞에 나란히 세운다.

### 3) 재판마당

일본 천황을 만나러 온 줄 알고 좋아하는 오적들을 잡아놓고 원귀들이 재판을 한다.  
오적들은 자기의 죄상을 은폐하거나 변명하고 외세가 도와줄 것이라고 배짱을 부린다.

### 4. 처형

구호와 노래를 외치며 5 적들과 이를 도와주려는 외세들을 붙잡아 처형한다. 화형식을 할 때  
에는 오적들의 옷 등 상징물이나 외세의 깃발 등을 모두 빼앗아 태운다. 그리고 모인 사람 모두  
의 결단의식이 되어야 한다.